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金) 本紙夕刊十二面

英、消極的인態度에 外務當局은不滿
小問題拘泥大局的見地沒却
親日具體化不企圖

【東京電話同盟】林內閣의親英方針闡明에 對하야 英國이든外相을 爲始하야 各方面에서도 好感을 갓고잇는데 外務當局에서는 英國政府가 日英間交涉에當하여는 爲先中國問題、海軍軍縮問題、基隆問題에 關하야 日本政府로부터 率先하야 具體的動向을 示할것이라는데對하야 同意하기難하다는 不滿을示하고잇다 卽最近의 日英接近工作은 口號뿐으로 具體的으로는 거이成果를보지못하는 最大의理由는英國政府當局은 日英間의 區區한小問題에拘泥하야 大局的見地에서 政治的解決을圖하려하는 熱意가 업는데 基因하는것이라고 觀測되다 右諸問題에對한 日本當局의 見解를綜合하면 左와如하다

一、中國問題
英國에서는 中國의主權及領土의 尊重을約束하기爲하야 日英米中等數個國의 約定을 締結할 意向이듯한데 이러한問題는 日中 日英各國間에 解決할問題로 集團的解決을 圖할것이아니다 그리고 中國의 領土主權保全과 如한것은 外國에서 保障할 性質의것이아니라 中國自身의 힘에依할 것이라고 思한다

一、軍縮問題
主力艦航空母艦의 全廢에依한 徹底的軍縮實現은 일즉부터主張을 認定하야 新軍縮條約을 成立식힌다고하면 國際政局의 安定에 資할바가多大한것이다

一、基隆事件
基隆에잇서 日本警察官의 英國水兵에對한所謂暴行事件에 對하여는 政府에서 數回에亘하야 事實調査를 行하엿든바 日本 警察官에 何等非行이업는것이 判明 되엿다 英國이 自國의 取調만에 拘泥하고 日本 政府의 數回에 亘한取調를 信用치안코 極東艦隊司令官 리틀少將이 英國艦의日本訪問中止理由로 同問題를揭하는것은 全然 不可解이다 本問題는 目下交涉進行中임으로 不遠에 落着될것이나 英國이 如斯히 些細한問題에 拘泥치안코 政治的解決에 進出함이 조흘것이다 中國에對하여는 日本에 協調를 求하는것이 無意하다는結論이 생겻다

日英接近의時機는去!
中國問題에關한 中國側各方面의意向

【上海廿五日發同盟】日英提携에 對하야 佐藤外相이 議會에서 行한 言明은 中國에 反響을 이르켜 中國을 中心으로 日英蘇外交戰의 三巴關係에 更大關心을갓고잇는데 各方面의 意向은 中國에 關한限 日英接近의 時機는 이미지나갓다는데一致되엿다 卽

一、리드·롯스氏가 日本을 訪問하엿슬際 中國의 滿洲國承認에 英國이 援助할것을 條件으로 日本의 大陸政策의緩和 對中共同投資를 勸說한데 對하야 日本은 이를 一蹴하엿다

一、日中交涉에도 英國이 中間에서서 中國의 排日停止를 交換條件으로 綏遠工作의 停止를 日本에 要求한데 對하야 日本은 이를 拒否하엿다

一、英國의對日態度는 리드·롯스氏가 再次日本을 訪問하엿슴에도不拘하고 不成功하엿슴으로 그때에 이미情勢는 一變하야

强制的으로取締
對西義勇兵派遣阻止에關한
英佛緊急對策內容

【倫敦二十五日發同盟】英伊兩國政府는 伊太利兵의 西班牙上陸問題에 關하야 緊急對策을 協議中인데 二十四日 델보스外相과 콜라크英大使와 會談한結果 英國政府는 佛國側의 要請을容認하야 今後事態가 더욱緊迫할 境遇에는 强制的으로 義勇軍의 派遣을 取締하드라도 不得已하다는데 意見一致되엿다 英佛兩國政府間에 成立된 緊急對策의 內容으로 解釋되는것은 左와如하다

一、伊太利政府가 今後더욱 西班牙에 軍隊를派遣할境遇 必要하다고하면 强制的으로 右行動을 阻止함도 不得已하다

一、同問題에 對하여는 兩國政府는 더욱協議를 進捗할것이다

一、其結果如何에依해서는 或은 監視艦艇이 義勇軍을搭載한外國船舶을 發見할境遇에는 單一히 監視委員會本部에通報할 에끗치지안코 同義勇兵의輸送을 阻止할指令을發하게 될는지도알수업다

水害應急救助費 國庫補助決定
十三萬四千圓을六道에配定

昨年의 風水害當時의 各道罹災者應急救助費에對하야 內務局에서는 補助査定中이든바 最近 十三萬四千餘圓을 支給키로되여 各道配定을 左와如히決定하엿다

忠南	三、七〇〇圓
全南	五、三八三
慶南	四六、七〇六
全北	二二、八八九
慶北	六四、一七四
江原	四、八〇〇
計	一三四、三三六圓

勇敢警察官에 榮譽功勞章
神武天皇祭日授與

去二月三日平北對岸 輯安縣老虎山에蟠居하는 匪賊討伐에際하야 勇猛果敢한 行動을 始하야 마친내 敵을 殲滅한 名譽잇는 警察官에 對하야 警務局에서는 警察官最高의 榮譽인 警察官功勞紀章을 授與하기로되여 來四月三日 神武天皇祭를 期하야左의五名에 對하야 이를 授與하기로 되엿다

平北道警部補 市瀨嵐美
同 巡査 故 竹迫實
同 同 濱川繁
同 同 池田好雄
同 同 明與村左男

修正에依한歲入欠陷 自然增收로補塡

【東京電話同盟】臨時租稅增徵法을 비롯하야 其他稅 關係法案은二十五日 貴族院特別委員會에서衆議院의 修正대로 可決되엿는데 右修正으로 생길 百五十萬圓의 歲入缺陷을 爲하야 大藏當局은 卽時 財源을 設하든가 或은赤字公債를 發行하지안코 旣定方針대로 自然增收에 依하야 補塡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目下 衆議院에 잇서 輸出組合稅의 修正에 對하여도 同樣의 方針이다

伊太利、유고國間 修交條約調印
經濟協定도同時締結

【벨그라드二十五日發同盟】伊太利外相 챠노伯은 유고슬라비아首相 스토야노비치氏와 二十五日 벨그라드府에서 兩國間의恒久的 不侵略關係를 確立할 新政治經濟의 協定에 調印을 終了하엿다

【벨그라드廿五日發同盟】伊太利 유고슬라비아兩國政府는 新修好條約締結과同時에 經濟協定을締結하고 二十五日차노外相 스토야노비치首相과의間에 調印을完了하엿다 新協定은現行記定制의 延長及 常設經濟委員會의設置를 骨子로한것이다

유、伊協定內容 伊에合倂承認

【벨그라드廿五日發同盟】伊太利政府代表챠노伯은 廿五日午前벨그라드府에到着하야即時外務省에 유고슬라비아首相兼外相스토야노비치氏를訪問한다음 攝政파울公과도會談한結果 條約締結에對하야 完全히意見一致되여 午後유고슬라비아外務省에서 調印을完了하엿다 條約의文面에잇서서는 스토야노비치首相 及 챠노伯은 各共、유고슬라비아國王及 에디오피아皇帝로서의 伊太利國王을 代表하야 유고슬라비아政府가 伊太利政府의 에디오피아合倂을 承認하는事實을 示하엿다 新條約은 全文八條로 伊유間에 橫在한一切의 反目關係를淸算하고 恒久的親善을 確立한것인데 아드리아海를 擁蔽한暗雲은 玆에 一掃되고 東地中海의情勢는 一新時期를 劃하게되엿다 條約八項目의 內容은如左하다

一、伊유兩國은 共通한國境에잇는 아드리아海의 現狀을相互尊重하고侵略事實이發生할境遇에는 兩國은侵略을 利롭게함과如한行動을 一切삼가하기를約함

一、國際的紛糾로 兩國共通의利害가 毀損될境遇 兩國政府는이를 防衛하기爲하야 共同措置를取하도록 互相協議諒解를遂하기를約함

一、伊유兩國은相方國間에잇서 斷然 戰爭行爲에 訴치말고 또 兩國間에 發生할紛爭利害의 問題等에 對하여는 一切平和的으로 解決할것을 嚴肅히提案함

一、伊유兩國은 其領土內에잇서 相對國의領土完整政治經濟의 秩序를 損傷케함과如한 一切의行爲를 禁함

一、兩國間의 通商關係를 刷新하기爲하야 近近別個로 新協定을締結함

一、兩國政府는 本條約은 兩國어너一方이 이미締結한 如何한 國際的公約에도 背馳하지안키를 諒解함

一、本條約의 有效期間은 五個年으로하되 其後當事國어너便에서나 何等通告가업는限 一年式繼續效力을 延長함

一、本條約은速히 벨그라드府에서批准을交換하야 效力을發生함

【羅馬二十五日發同盟】뭇솔리니首相은 二十五日、伊太利유고슬라비아協定成立結果 亡命中인 유고슬라비아 테로團의스치黨員二十八名을 卽時釋放할旨를 發表하엿다

데비스米國代表 英政府意向打珍
軍縮幹部會의開催에對하야

【華盛頓二十五日發同盟】國際砂糖會議에 米國代表데비스氏는 로버트벨氏를 同伴하야 目下倫敦에 가잇는데 倫敦到着後는 英國政府에接近하야 國際軍縮會議幹部會의 開催를折衝할것으로 보이는바 데비스代表는 爲先英國政府에對하야

一、쥬네브軍縮幹部會는 再開되는가

一、國際軍縮會議幹部會開催에對하야 英國政府는 他國政府에서엇더한提案에 接하엿는가

等에對하야 質問하고英國政府의 明快한 見解를 徵한後 國務省에 報告할터이다 國務長官헐氏는 二十五日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데비스氏의 使命을 確認하야 다음과가티言明하엿다 데비스代表에對하야 軍縮幹部會에 出席할 與否의 決定을 함에압서 英國外務當局과 充分히 協議하도록 訓令하엿다 但 國務省은 아즉 具體的決定에 達치못하고 爲先 데비스代表의 報告를 기다리기로 한다

八面鋒

◇西班牙問題로 伊太利가 붓적쇠에 不干涉委員會까지 쓸데업다고 主張。

◇이만치 버틔어서는 英國이나 佛國이 꼼짝못하리라는 짐작도잇겟지만 에디오피아問題로乘勝之勢라 놀라운일。

◇日本과 伊太利의通商條約適用範圍를 植民地까지 擴大식히게되리라고。

◇에디오피아物産이 極東市場에까지 漫步하게되리라는쟈。

◇朝鮮米調査에 關하야 不正確한點이잇슴은 當局도認定。

◇數字에關한일이오 처음하는일임으로 或틀리는일도잇슬것이나、이런일이種種잇다면 官廳數字를 엇지밋겟소。

◇二十六日로 市內公普校入學兒童의 許不許를決定通知。

◇不許通知를 밧게된 數千의兒童은 글배홀곳을 어대서차즐가。

現行醫師制度는 醫師生活保障에適當
金杉氏、國民健康保險法案에對해反對質問
貴族院本會議(廿六日)

【東京電話同盟】會期延長第一日의二十六日 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二十三分開會 卽時日程에入하야

一、小運送業法案(政府提出、衆議院送付)

一、日本通運株式會社法案(同上)等二案을一括上程하고 伍堂商相으로부터提案理由를 說明하고質疑업시 十五名의委員에게 付託한다음 問題의

一、國民健康保險法案(政府提出衆議院送付)을上程하고 河原田內相으로부터 提案理由를說明하고 質疑에入하야 通告順으로서 醫師會의長老 金杉英五郎氏(硏究)

余는 元來醫事에關한 社會立法에對하야 果然 日本의實情에適當한가안한가를 疑心하는 者이다 이미 衆議院을 通過한本案을 水泡에歸케하는것이 本意가아니다 新聞紙의傳하는바에依하면 余는 醫師會의代表로 質問한다고하나 余는全然 大所高所에서 政府에質問하려하는바로 醫師會의代辯을하는것은 絶對로아니다 라고 自己의 立場을 闡明하고 從來 社會局 衛生局과醫師會와의間에勞働保險實施를 中心으로 여러가지로 難關에 遭遇하여잇는 事實에 비추어보아 今回의 國民保健이 圓滿히運營될것인가 하야 勞働保險法制定의 經緯를 說明하고 日本의 開業醫制度는 恒常醫療의進步에伴하야 硏究하고醫師의 生活을 保障하는데 가장 適當한것으로 醫療代가 過度하지는아니하다 社會局의 調査에 依하면 農家一個年에잇서 醫療費는 二十五圓에 達한다고하나 現金支拂은 十分에 一分의程度로 他는 여러가지 辦法或은 蔬菜類에 依하야支拂하는者도잇다 社會立法을 制定함에 當하여는 社會各方面의意向을 察知하고 決定하지안호면안된다 本案과 如한것도醫師會 其他 各方面의 摩擦을 極力避하지안호면안될것은 勿論이다 今回의 案은 從來의 健康法案보다도 被保險의範圍를 擴充하엿는데 이것은 開業醫를 壓迫하는것이아니다 그리고 醫師會의 團體契約을法文化하지안헛는데 이것은 如何한 理由에 依함인가 本案과 産業組合과의 關係는 如何한가 醫師會와 內務當局의摩擦에 對하야 如何히 생각하는가 三月卅一日現在의 醫療代行機關은 可及的 적게할생각은 업는가

河原田內相 御意見中 社會立法에 對한 懸念에對하여는 甚히마음에 맛지안는다 今日의 社會狀態로보아 困窮하야 自己의 힘으로 醫療할수업는데에對하야 國家가 最少限度로 醫療의 機會를 與함은 緊要한일이라고 나는밋는다 庶民階級以下에 對하야 醫療費外에社會立法을 制定하고 여러가지扶助方法을 講求하고잇는데 此는 當然한일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 社會立法의 制定에 當하야는 利害關係가 깁흔各方面의 摩擦을 적게함은말할것도업다 工場、鑛山勞働者에 對한保險成績은三百萬人의從事員이醫療를밧고 安心하야 勞働에 從事하고잇는것은 爲先好成績을 내고잇다 醫師會와의 團體契約을法令으로서 식히는것은 團體契約그것에는 반다시 反對하는바아니다 말슴과가티 日本開業醫制度에 비최여 實情에 [illegible]도록 團體契約을 法文化하엿슬뿐이다 卽團體契約을함을 反對가아니나 國家가 法規로서 團體契約을 식힘에는 假然贊成할수업다 産業組合이 醫療機關을代行케함은 庶民階級 醫療機關을發達케하고 庶民階級의 醫療를完全케하는 點으로보아 別로 납브지 안타고 생각 한다 國民健康保險組合이되면 自然醫療가 困難업시 될터임으로 醫師의 生活을 脅威함과가튼일은업스리라고 生覺한다 醫療代行機關은 大端적다고 생각한다

고答한즉 金杉氏自席에『內相의 答辯은 不滿하다 反問치안켓다』고述하고 午後零時二分 一旦休憩同一時半再開할터이다

航空省設置에 遞相도同意表明

【東京電話同盟】兒玉遞相은 二十五日 貴族院第五分科會에서 曾我祐邦子의質問에對하야 左와如히 航空省設置에 同感하는뜻을 言明하엿다 航空省設置問題는 軍部方面에서도 提唱하고 防空과 民間航空擴大充實의 必要와比例하야 早晩實現되리라고 觀測되는데 其具體的方法으로는

一、遞信省航空局의 外局制에依한擴大强化의 方策을 一段進捗식혀 航空省으로함

二、但其管轄事項은 現在의外局으로서의 內容이不充分하므로 가、文部省航空硏究所 나、陸海軍兩省所管各試驗事項을新航空省에移管함

三、이와同時에 現在의民間航空事業의範圍를 擴大强化하야서 民間航空의 綜合統一을 圖하는同時에 空軍에對한 豫備的機能을 모도로하리라고 觀測되는데其時期에對하여는아즉相當한時日을要하리라고觀測되다

秋田氏新黨運動

【東京電話同盟】新黨運動은 政局의 底流가 險惡한此際 일즉부터 新政治運動의 轉換을 目標로 局面打開를策하고잇는 秋田淸氏는 四國出身代議士會라는 名稱下에 富田議長을仲介하야各派와 會合을 行하고잇든바 일즉 革新俱樂部當時行動을가티하고잇든 淸瀨國民同盟幹事長을通하야 安達總裁에 對하야 懇親을 圖하기爲하야 晩餐會를하게하자고 申請하고 二十五日衆議院本會議散會後 午後七時부터 無所屬室의瀧正雄氏와連名下에 赤坂星岡茶寮에서·安達總裁淸瀨幹事長을 爲始하야 國民同盟所屬代議士總數十二名、義者同盟에서 脫退한 風見章氏를 招待하고 晩餐을 함께하면서 極히雜談的으로 政局의 現狀에關하야 意見을 交換하고午後十時散會하엿다

香港防備의缺點認定코 大軍備擴張計畫
英陸海空軍大演習結果

【香港二十五日發同盟】香港軍事當局은 今回陸海空軍大演習結果를 愼重硏究한結果 陸海兩軍의 兵力及軍事施設에對하야 香港現在의 防備力에 重大欠陷이잇슴이 明白케되엿슴으로 十五億國防計畫中 爲先 香港에 充當된二百萬磅으로서 一大軍備擴張을行할것을 非公式으로 發表하엿다

一、陸軍省防備强化案인 現在의 陸軍六千을 八千으로 增員하고저九龍半島新兵營의 落成을 기다려 明年初實行한다

二、新兵營은 四千人을收容함에 足한것으로하야 그第一期建築으로 四十萬磅을 支出함

三、假兵營의 軍需品司令部는赤柱新兵營에 移轉하고저 一九三七年度豫算으로 七十四萬磅을司令部兼築費로充當하고 舊司令部는軍需品庫로함

四、空軍强化를 爲하야 偵察機戰鬪機爆擊機各數機增派를 本國政府에 建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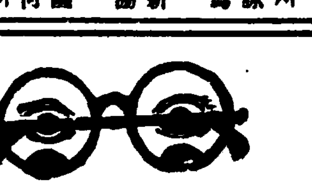
此外陸軍病院改築費百萬磅等을 其他陸軍施設費로 充當되고잇는데 今回의演習으로 特히 注目의的이되엿다 九龍半島는로치카高射砲增設等으로 百萬磅이 充當되여市街背面의 防備設備强化는 勿論이 前哨陣地로서 九龍鐵道沿線山地을 掌握하고 永久的要塞陣地를 構築할터이다

蘇中協定을 國民政府否定

【上海二十六日發同盟】蘇中間에 重要協定이 成立되엿다는 說에 對하야 國民政府當局은 二十六日非公式으로 左와如히 否定하엿다 此種消息이 傳하는것은 常識的想像問題로 적어도 常識잇는者라고하면 如斯한 뉴스가事實인가 아닌가사로 判斷할것임으로 이에對하야 正式으로 否認하기는不當하다

人事·集會

▲金喆勝氏 全日本齒科醫學會出席次로昨二十六日四時京城驛發向東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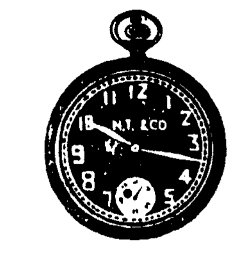


院病專門科眼 センスラン
檢眼無料 眼學生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二
◎急告 世富博士의商號를使用하야 奸利를取하는 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賢은照亮하시옵소서

英語科(夜間)(第一學年五〇名 二、三學年若干名)(願書四月二十日限 規則書要郵券)
商業科(晝間三年修了)認可申請中
京城基督教 靑年會學校 京城府長谷川町 公會堂南上

醫師試驗準備書
漢文醫學講義通信教授(二錢切手添付 鮮、谷見本進呈) 今大募集 十五名中先到十內(前數一人式)講義十五冊半額 本名京城府新設町一二三九 春秋醫院白記

京城高等音樂學院 新學期生徒募集 男女
豫科本科 各科五十名 師範科 ピアノ、ヴァイオリン、聲樂科 (學則要二錢切手)
願書提出 三月一日부터 同月末日까지 試驗期日 四月三日 開學 四月十日 (京城嘉會町二〇八)



獨逸사람의솜씨 獨逸汽車票夜光時計 (白面同價) 朝鮮初步宣傳
이時計의일홈이 汽車票이니만큼 獨逸鐵道局員의專用品 國際洋行에서 安價奉仕品으로 特選한것이다
◉百聞이不如一見 即注文必試可
夜光은夜間指時 十七型 四圓 特別安價 全部先金送料負擔
安東縣市場通 國際洋行通信販賣部 電話208番 振替口座京城30602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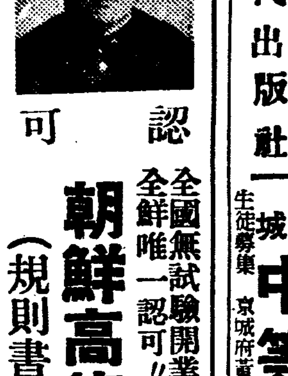
日時 三月二十七日(土曜)下見 二十八日(日曜)午後一時賣立開始
府內古經堂李秉直氏所藏品
書畫 骨董 大賣立會
會場 京城府南山町二丁目 札元 株式會社 京城美術俱樂部 電話本局一三六〇番

生徒募集 晝夜 京城中等公民學校
本科(二年制) 商業專修科(一年制) 入學資格小學校普通學校卒業程度以上
○出願期限 四月五日迄 試驗 四月六、七日 ○商業專修科ハ四月十日迄出願 詮衡ノ上許可ヲ決定ス (學則要郵券) 太平通大漢門橫入 (電本四、七六一番)

春物大書出 裝飾材料 朝鮮商美社 京城南大門通一

そろばん下手ては出世が出來ぬ ▼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現代出版社 大阪市東淀川區西町 發賣元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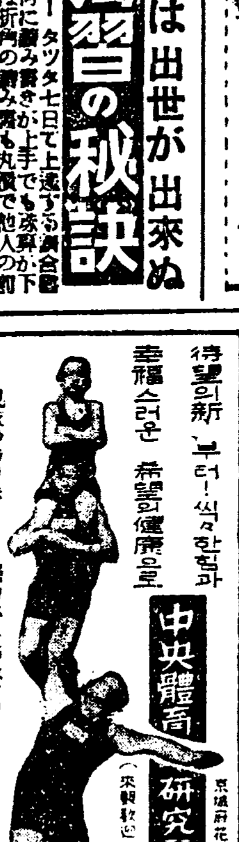
朴耳鼻咽喉科医院 朴喜鎭 鍾路二丁目 永保빌딩二階



可認
全國無試驗開業醫師同樣聖業(生活安定)全鮮唯一認可"速成科專門部、硏究所ノ別アリ"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規則書送呈) 釜山府草梁町一三五

京城中等豫備學修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二三番地 (電本五三二六〇番)
◎新學期開始四月十日 (晝夜)(學則要一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各中等學校入學又ハ編入學受驗準備)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四月十日◇學則要一錢切手
第四八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前期)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二三番地 (元實踐簿記學修院改稱) (電本五三二六〇番)



待望의新 부터! 씩씩한힘과 幸福스러운 希望과健康으로
中央體育硏究所員募集 京城府花洞四二番地
現代體力增進法第三版出來 改正增補

軍手의副業
手製造 (家)募集
말삼할것도업시軍手는季節업는實用品으로販路는世界的으로漸漸擴大하야 前途洋洋한것으로製品은어 大不足인데다只今까지는 使用키不便한能率이低한 式製造機를使用하고잇섯든것은製品이 밋처대지못하고、돈벌기 爲하야始作한것이機械가不適當하야 製造가不能하고 것이는 안되엿다 여기서我社는
한能率이놉흔 또 使用키쉬운自動軍
手製造機의專賣特許의 大發明을完成
하야이것을專屬製造家에提供합니다 本機械는何人이
아모라도 簡單히使用키쉽고 能率은倍以上이오 本業이나 副業으로도 능히... 自宅에서 할수잇는 特典...
(詳細案內書進呈)
申込所 京城府錦路六丁目初橋東 福積編物工業朝鮮營業所 電話光化門二三四番
本社 大阪市北區岩井町二丁目

痔疾 治病專門 回春堂醫院 京城府化洞一九ノ一

基督教綜合雜誌 새사람
一部二十錢 半年一圓二十錢 一年二圓
發行所 京城府閭里町 福音社 振替京城八〇七九
第三輯主要目次
새사람運動第二宣言(卷頭言)……主
偏黨心(主張)……秋
나의所願(感想)……田
初代敎會의兄弟愛……蔡
說 日就月將……朱
傳道의使命……田
敎 무거운짐을진人生……朴
入山瞑想錄……編
불꽃속의장미취상……鄭
哲學者의會話(信短知言)……金
宗敎批判의特異性(宗敎論壇)……金
예수의하나님나라槪念(神學)……鄭
現基督敎思潮의趨勢……
宗敎敎育의傳道的價値(硏究)……
永遠히不滅하는天愛(詩歌)……
주의손길(詩)……
孤兒의慈父조지·뮬러(傳記)……
그는말하다(隨筆)……
거룩한터(宗敎童話)……
예수狂人金禮根(實話小說)……
사랑하므로(名作小說)……

포리도-루
兄妹 新民謠 山川草木 流行小唄 六字백이
A面 國境의밤·銀河夜曲 故鄕은 멧千里인가 旅情多恨·그리워라그옛날이
B面 愛怨曲
新民謠 流行歌의 傑作盤六種과 들을수잇는 美聲 綜合盤입니다
(一九四〇五)

咸北地方積雪五尺 交通杜絶로混亂

北鮮鐵道도積雪로運轉不能 風雪로復舊도困難

【二十六日城津局入電】이십오일 오후령시반쯤에 북선철도승포(承農圃) 승량(承良)사이에 천진기점 일천일백칠십칠호 칠백미돌부근에서 이십사일오후세시오십분에 경성역을떠나 라진(羅津)으로가든 제오백칠렬차가 쌓인눈덩이 속에 무처서 운전을 할수업게 되엿다 그래서 청진방면과 라진행 제십일렬차는 훈융(訓戎)에서 제오백칠렬차로 편성하야 수성(輸城)까지 껴을려운전하엿다

그리고 이십오일 청진에다이는 제오백렬차의 객차로서 수성이남은 경성행제오백팔렬차를 충당하엿다 눈은지금도(이십륙일오전) 끄치지안코 작고 퍼붓고잇슴으로 좀처럼 복구할여망이 보이지안는다

【二十五日夜鐵道局着電】함경북도(咸北)일대에는 이십사일밤부터 때아닌 대풍설이잇서서 경원(慶源)회령(會寧)청진(淸津)라진(羅津)등지에는 한자내지 다섯자까지 눈이싸혀서 각지의교통기관이 불통되어잇나 그런데 각관계당국에서는 방금 극력제설(除雪)중이나 강풍(强風)이맹렬히부는고로방금간교통 기관의 복구회망은 업다하며 각지기차 자동차가불통되어잇는곳은 다음과갓다

▲慶源郡都是間驛—承良間 ▲承良驛發京城行(以上汽車) ▲淸津—雄基間 雄基—西水羅間 慶源—會寧間 淸津—羅南間(以上自動車)

富豪의아들로 外套專門窃盜

시내(종로)(鐘路)오정목 오십팔번지 모부호의 둘째아들 전과삼범 최종복(崔鍾復)(二三)은 수일전 절도혐의로 종로서에인치되엿는데 취조한결과 그는 작년 시월달부터 시내 관청은행회사 경성역등에서 외투오십벌구두삼십켜레 그피해액 모다 일천팔백원가량인것이 판명되여 계속 여죄를 취조중이라고한다

漢南町强盜(未遂)事件에 愛慾關係가伏在? 疑心나는犯行經路

기보=부내한남정(漢南町)미곡잡화점에서 이러난 강도미수사건은 그후용산경찰서 성기(成樹)사법주임이하 형사대의 총출동으로 맹렬히수사중인데 이십오일오후여덟시쯤 용의자일명을 검거하얏스나 그후새로운 단서를찾게되여 사건은 애욕의삼각관계가 중심으로 허위고발인가 진정의강도사건인가 사건은 복잡한내용을 가지고잇는데 탈튼한바에의하면 범인의 범행으로보아 조선식도에는 칼날에 흙이무든것으로보아 나물캐든칼인 모양으로 칼은 부내에서 가지고온것이 아니라는것 칼자루에는 자지색허리끈을매여 강도는 그끈은 손에감고 칼날을 우에향하야 내미럿다는점은 상당히 수완잇는 범인이듯하다는데 피해자리여식(李○○)측으로보아서는 먼저점취당한 시계도 사일전에 한남정(漢南町)어느 사람으로부터 빌린것이고 강도가『이놈아 이러나거라』할때 칼날을 잡어비트럿다는데 손가락 한개만 조그만한 상처가잇는점 작년구월에본처는 죽엇는데 임신팔개월의이십이세의 어여쁜새마누라와 불화가 끗는새가 업시지낫다는점 피해자의 방에는 빼서간금고도 잇는데 강도는 금고를탈취하지도 안코강도가 가해하려는점 이상의 모든점으로 보아 새로어든 마누라를 중심으로 애욕의 삼각관계나 아닌가하나 강도가 도주하며 그집에 떠러트린담배 마코가잇서 그것을 단서로마친 한남리(漢南里)의모청년이 개성(開城)으로 이십오일에 떠난일이 잇스므로 용산서의 백석(白石) 리(李) 양형사가 개풍군(開豐郡)까지 출장하야 추격탐색중이라는데 진범이이 누구인지 아직도 각방면으로맹수사중으로피해자도인치추조중이라한다

홈친외투오십벌 꼬리가길어本色綻露

전북김제군(全北金堤郡)에 본적을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림창수(林昌洙)(三二)는 지난이십구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외투다섯벌을 훔친것을 비롯하야그박게 부청도청 세무서등지에서 전부오십여벌의 외투(時價約四千圓)를 훔처서이것을시내각전당포에 입질하야 주색에 랑비하고 잇는중이십오일 본정서에 체포되엿는데 입질할때에 번번히 변성명을하나 원체수효가만흔지라 가튼전당포에 세벌 혹은네벌식 입질하다가 경찰에 걸리게되엿것이라고한다

京城釜山間 不定期急行

廿七日부터當分間運轉

철도국에서는 조선 만주 직통려객이 련일 무척 만호므로 경성 부산사이의 『노조미』의려객을 완화시키기 위하야 이십칠일부터 당분간 부정기급행(不定期急行) 제일천칠렬차를 운전하기로 되엿다 그렬차는경성역에서 오후두시오십분(종래시간은 오후한시오십분)에 출발하야 오후 열시십오분에 부산에 다이게되엿스므로 경성이남의 일본내지방면가는 려객에게는 매우 편리하다한다

桓仁輯安兩縣의 武裝團討伐戰展開

今春부터小衝突頻繁

압록강(鴨綠江)대안에는 무장단이 무시로출몰하고잇서 만주측으로는 관동군(關東軍)당국과 만주국군경들이 수시로토벌하는외에 조선측에서도 국경경관이 수시로출동하여 토벌하고잇는데 이토벌들은 여러 집단이 잇고 색별도 여러가지가잇서 그책동도 동일치안다 대별하여보면 조선인측 집단과만주인측집단의 두가지잇는중 그색채는 조선인측은 공산주의적색채를가진것과 공산주의적 색채를다소가지되 그보다는 민족주의색채가 농후한것이잇고 또만주인측은 공산주의적 색채를가진 정치적집단이 대부분이요그외에 종래부터잇는 단순한마적(馬賊)이또상당한수에 달하는모양이다 그들은 대안산림 지대를 근거로 그수는 확실치안코나수천명의 다수에달하야 당국으로서는그토벌에 상당한노력을하는터에잇다 그런데 그중조선인측집단은 주로 한남대안에 순전한공산주의색채를가진것과 평북대안 즙안(輯安)환인(桓仁)양현에 근거를둔 민족주의적집단의 두가지가잇서 각히만주인 비단과연락을취하여가지고 항상 책동을하고잇는터인데 그중에서도 평북대안에잇는것이 상당히 유력한 모양으로 그토벌책을 강구중금월중순경부터 평북경찰부의 특별경비대의 동원으로 상당한규모를 가지고 토벌을 개시하야 최근대안에서 사오십명내지 백여명의 비단과 여러차례 교전을한바잇다 당국은 이봄에될수잇는데까지 적극적 토벌을할모양인데 그비단들조선○○군이라하야 그수도 상당한수에달하며 총사령격은 김동산(金東山)으로 그직제(職制)에는 여러가지로분류되여잇는것으로 보아 얼마큼 근거를 가진듯 이관측되고잇는데 이봄중에 즙안 환인량현사이간지대에는 상당히 격렬한토벌이진행될모양이다

前體協書記에 懲役八年言渡

상당한 학식이 잇는청년으로 직업을 일흔후 나뿐마음이 생겨서 드듸여 절도, 강도상인까지하엿다는 전조선 체육협회서기 부내충신정(忠信町)구십구번지 김복만(金福萬)(三?)에관한강도상인, 절도피고사건공판은이십륙일경성지방법원에서산하(山下)재판장주심 근등(近藤)검사관여미테 열리는데재판장은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팔년을언도하엿다

巡査行勢한 醉漢留置場에

순사행세하다가 참말순사에게붓잡힌사나히—부내 원남정(苑南町)이백사십번지 제국생명 보험회사 의교원장뢰(長瀨)라는 자는 이십오일 저녁여섯시경동정칠십칠번지 홍인선(洪仁)의술집에서 술을마시다가 엽헤잇는 사람에게 주소씨명직업을 뭇는등 호주머니를 들추는등 순사행동을하다가 정체가탈로되여동대문서류치장 신세를 일주일간 지게되엿다

市內自動車一齊檢査

이십륙일정오부터 道內郡部도同時에

이십륙일 정오부터 오후두시까지 경기도 보안과에서는 계원이총동원하야 시내각서와합끠 시내의 자동차의 일제검사를하엿다 차체(車體)검사와 검사증과그실제상황의 진부(眞否)와운전수면허장이며 기타규측위반에 관한것을 모조리 검사하엿는바 도내의 각군부에는 오후두시부터일곱시까지에 이검사를하게되엿스며 이와동시에 자동차의속력취체도 하게되엿다고한다

쇠도적놈 올나가는쇠갑세날뛰는쇠무리

—이십륙일오전두시반쯤되여 살고지다리(箭串橋)공사장창고에 괴한두명이침입하야 철근십오관(時價二十圓)을 훔처메고 도망가는것을 공사장간수가 발견동대문서원이 체포하엿는데 그들은부내향당정(杏堂町)삼십팔번지홍의준(洪億俊)의 집에잇는 송룡호(宋龍浩)(二三)와 가튼집에 잇는전호진(田浩鎭)(二?)으로판명

靑雲도헛되다! 서울은무서운곳

農村少年의都會厭忌譜

례년 이맘때쯤되면 동경(憧憬)의곳 서울을 차저서 출분(出奔)하는 도회병환자가 만컷만 이도회권(都會圈)의 선풍은 무자비하게도 그들에게 절망과 실망을 선사하는것이 례사이다 여기에 이봄을 마지하야 또다시이가튼 암야행로(暗夜行路)의 슬픔을 맛본시골소년의 절라라한도회염기보(都會厭忌譜)하나가 잇다

—이십륙일아츰 시내종로서(鍾路署)보안계에 누추한의복에 학생모자를쓴 어린소년이 얼골은오래동안의 초조와 고생을말하듯이 핏기운조차 하나업시피로한빗을 보이면서시골로가게하여주십시요 하고 눈물을리며애걸한 사실이잇섯다 이제 그아히의 이야기를 듯건대 그는 충북청주군미원면 내산리(忠北淸州郡米院面內山里) 홍정균(洪定均)의 큰아들 성선(聖善)(一五)이라고하며 집에는 늙은양친과 모두 여섯식구로 아버지가 품파리하야 하로에 단 오륙십전이라는 적은돈으로 겨우 생활하여오는 형편으로 성선이도 보통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게되후는 그근방 자전차점에서 한달에사원식 바드면서 일을보아오다가 바람에 돗기는 서울에 올녀가면여기보담 나은곳에취직할수가 잇다고 하기에 그야말로 어린가슴에 청운(靑雲)을 품고 지난 이십삼일 아츰 서울로 올려왓다고한다 서울의 대문정거역에 나리자 이십세가량먹어보이는 양복쟁이가 친절한듯이나서면서 조흔곳에 취직식혀줄터이니하고 그를다리고 종로네거리로 드러와서 이곳저곳 도라다니는 사이에 그악독한 거리의기생충(寄生虫)은 그아히가 생명가티 역이고잇는 돈이원가량을 전부 먹어치우고는 그를 회신(和信)근방으로 다리고가서무어무어하고 그를감추가리속이고 그곳에서 그만 꽁문이를빼고마럿다고한나 일이이러케되고보니 이제 그는 궁경에빠지게되여 이십륙일 아침까지사흘동안 먹을것을 먹지못하고굶른써주으린창자를겨우 견지어서 행여나하고 길에 떠러진 행운을 차저서 도라 다니다가 일홈모를 엇던 신사가 십전자리를하나 주기에 그것으로 먹을것을 사먹은것이 그가 사흘동안에 어든 단하나의 서울사람의 자비엿다고 한나 그가 기자에게 말한 첫 마디가 서울이란곳은 참으로무서운곳입니다 조흔사람은 조치만은 낫븐사람은 아조낫붑니다 이제는 시골로 도라가서 농사나 짓겟습니다 하고 내시골이 역시 나의 천국이라는듯이 말하고 잇섯다 그리하야 그는 그서의 주선으로 그저녁 고향으로 도라가리라고한다 (사진은 홍소년)

江界에독기强盜 一家族六名殺傷

【江界支局特電】이십삼일 오전네시쯤되어 강계군어뢰면 풍청동(江界郡漁雷面豐淸洞) 김태린(金泰麟)(四○)의집에 독기를가진 강도가 침입하야 주인김태린과그의처 최경신(崔京信)(三九)을 즉석에서 때어죽이고 그의네째딸 두살된것과 그의 동생 태구(泰九)(二七)와 그의처 김운무(金雲武)(二二)그의 셋재딸 국선(國善)등 네명에게는 중상을 입힌후 장속에 너허둔 현금 이백오십원을 훔처가지고 도주한 피비린내나는 근래 희유의 강도인사건이 발생하얏다 이급보를 밧고 강계서에서는 사법주임이하가 총출동하야 범인 수사에 맹렬한 활동을 하는중이나 참해현장이 강계서로부터 백오십리나 떨어져잇고 어뢰주재소로부터도 오십리나 떨어저잇는산간지대일뿐더러 요사이 큰눈이 나리엇기때문에 범인의 수사는 극도로 곤난하다는데 범인으로 마 피해자동리 부근에서 로롱울 하고잇는자가 아닌가고추측된다

科學朝鮮에朗報

英國王立協會機關紙에 朝鮮產蝶類紹介

昆虫學者=開城의石宙明氏 方今發表論文을執筆中

【開城】현재 개성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에 교편을잡고 잇는 석주명(石宙明)(二八)씨는 영국왕립협회(王立協會)의 정탁을바더 아세아지부회보(亞細亞支部會報)란 기관지에 조선산 접류(朝鮮產蝶類)에 관한 거랑의 특별 론문을(사륙배판 약백오십페ー지) 집필키로되엿다한다 탈고(脫稿) 기일은 오월 말일내—이때문에 방금 침식을 일코 씨는 집필연구하기에 몰두중에잇다하니 조선자연과학의 세계적진출도 정히 이때인가한다 따라 새벽하늘에 별가티 드믄 우리조선곤충학자중 석씨의 이번 혜성적 출현은 결코 우연한일이아니다 여기에 씨의 거러온 경로를 간단하나마 一개해보자

—☆—

씨가 지금 전공으로 연구하는것은 조선산『나비』(蝶)의 변이급류(變異及分類)와 그 분포상태를 전문연구중인데 이를 연구하기된동기는 ……

—☆—

이런 변이상태에대한 연구는 일즉이 세계 어느과학자도 아직 체계잇는 연…변 즉 지금부터 약 십년전으로 영국 빼틀러씨의발표한 단편적연구가 그단서로 되여잇다한다 그런데이 변이란것은 가튼종류의 나비도 개체에따러 다른점을 분리시켜 연구하는것으로 씨가 일본내지 각과학연구잡지 지상에 발표한 론문은 백수십편에 달한다하니 얼마나 성실도독(誠實敦篤)한 연구가임을 알수잇다 그중 중요한론문은 역시 조선산 접류연구인바 이것은 동경제대(東京帝大)동물학교실에잇는『동물학회잡지』와 구주제대(九州帝大)동물학교실에잇는 접류동호회(蝶類同好會)기관지등에 발표하얏다한다 구론들을 세상에 내여논일이업다하니 이번 씨의 소개론문은 곤충과학계에 큰 파문을 이르키리라고 예측된다 끗흐로 기자는 한달에한번 머리깍그러 세상밧을 나단니는 외에 연구실 문을떠난 일이 업다는 씨의 말을듣고— 그 학구적 생활에 고심 참담한 경로를 물으니 다음과가티 말한다

—☆—

내아즉 어린 변배로서 고심담이랄것이 무엇잇겟습니가 마는 첫재 이방면에 연구가 되려면 자유로운 시간과 윤택한경비의 필요를 절실히 늣김니다 더욱이 이 자연과학계는 예술연구와도달러 천재적 재질보다 꾸준한 정진 로력이 성공의 모(母)가 되다고밋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진 로력과 경제적여유 시간의 자유—이 세가지 조건이 삼위일체(三位一體)로 구비되여야 되옵니다 그런데 나는다행히 집안형님이 극력 후원해주시고 학교의 여러 선배들이편달 해주심을 고맙게생각하고잇습니다

(사진은 석주명씨)

스포ー츠

中央基靑體育部의 各種大會日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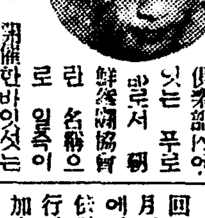
中央基督敎靑年會 體育部에서는 今年度의 體育事業案을 二十六日 다음과가티 決定發表하엿다

◇今年度事業豫定表

▲第十回全朝鮮軟式卓球選手權大會(四月十日)
▲第二回全朝鮮硬式卓球選手權大會(四月十日)
▲第十回全朝鮮力技選手權大會(四月廿九、卅日)
▲第七回全朝鮮器械體操大會(四月廿九、卅日)
▲第七回全朝鮮籠球選手權大會(五月廿七、廿八、廿九日)
▲第十回全朝鮮씨름大會(六月廿四、廿五、廿六日)
▲第十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九月九、十、十一日)
▲第十三回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大會(九月廿二、三、四、五日)
▲第九回全朝鮮個人柔道大會(十月九日)
▲第十一回籠球聯盟戰(十一月五日부터數週間)
▲柔道創立二十九年記念柔道大會(十二月十五日)
▲第二十一回會員籠球大會(十二月中)
▲第二回本會主催全朝鮮武道競技會(十月二十二日)
▲레스링優秀選手招聘(隨時)
▲體育講演會(隨時)
▲保健體育活動寫眞會(隨時)
▲體育座談會(隨時)
▲農村體育及古來體育研究

今春劈頭의 職業拳鬪

覇者金恩擧來征



朝鮮拳鬪俱樂部內에잇는 푸로로서 朝鮮拳鬪協會란 名稱으로 일즉이 職業拳鬪試合을 開催한바잇섯는데 同會에서는 이번봄씨ー즌을 마지하야 今日本웰터級의 覇者 金恩擧(링네임光山철) 對『영구·알데』(比島選手)를 메인에벤트로한 職業拳鬪戰을 來四月九日午後七時부터 京城運動場 陸上競技場特設링에서擧行할터이라는바 方今 同會의幹事 金容起氏가 渡東하야 前記兩選手와 玄海男(日俱) 宋德鎭(日俱)等諸選手를 招聘코저 交涉中이라한다 (寫眞은 金恩擧君)

卓球大會延期

申請은四月九日限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回全朝鮮卓球選手權大會는 四月三日에 鐘路靑年會館 運動室에서 擧行할豫定이든바 事情에依하야 來四月十日午後一時부터 擧行하기로 延期되엿다 따라서參加申請도 四月九日 午後四時까지에 마감하기로되엿다

市內各校合格者

法學專門

許斗柄 李禹鐘 申榮秀 鎌山朝夫 梁炳晧 盧瑛煥 河丁壽 權五瑛 姜淏求 崔圭弼 趙澈鎬 姜大鳳 康九鉉 金炫煕 姜壯錫 野海輝久 李紹敏 潮良竹雄 安章鎬 末延 鄭宰 權五星 沈學燮 崔貴鉾 閔敝 辛李爀求 武田信也 張克洙 三浦良朝 崔在彬 李哲鉉 朴在瑞 佐藤毅郞 朴昌謙 具本壽 河西正 趙永應 朴實洙 李完雨 朴正琪 梁宗萬 朴任浹 內海雄二 李錫胤 朴昌緒 光延且道 柿原正一 白斗鉉 姜敏 姜宏鈞 後藤明 近藤隆一郞 李兩相 全斗銖 李枝華 金東煥 尹蔌 松元和彦 張祓根 尹命儀 李俊榮 呂運昭 柳熙燮 末永京壽 福島宋一 孟睿永 咸在勳 稻田昇 張鄭燦 上西一二

水原高農

農學科

金谷仁 閔丙駿 金英鎭 林炳贊 閔熙植 朴基園 金松煥 趙光照 金貞權 金宙晚 朴道秉

林學科

朴鍾鉞 李種禾 李演 李成勳 李注寬 李仲鎔 金東哲

京城高工

紡織學科

崔元植 魯光煥 金枝鳳 趙東俊

應用化學科

洪鍾聲 申鉉斗 成佐慶 魯益煥

土木學科

丁往桂 宋在弘 沈鳳燮

建築學科

李龍海 高珍奎 林俊一 張龍雲 劉建鍾 鄭用植 申兌秀

鑛山學科

高大玉 宋圭律 孫事翼 尹泰圭 (九十一名中朝鮮人二十二名)

京城高商

李東煥 裴以洪 柳東 金東祚 張玫澤 李章憲 鄭鎬宅 洪敬善 尹學老 趙元基 金漢毅 李赫基 金梧宗 尹錫漢 鄭錫紹 鮮于熊 李錫漢 張日剛 尹炳商 金祥雲 朴完善(九十九名中朝鮮人廿一名)

京城醫專

李鳳基 李仁馥 任周鳳 植楊敏 金永濟 姜正鳳 盧在業 申東雲 韓大錫 許良琴 張炳弼 洪承毅 吳萬煥 徐河源 金德浩 金鍾賢 李敏沐 金榮注 張東乙 鄭承熏 曹旭煥 黃善玉 任正淳 (九十二名中朝鮮人二十三名)

天氣豫報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개이며 明日도갓스며 좀따뜻하여지겟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度一
同最低	零下四度七
今朝最低	零下四度一
今日正午	二度二

廣告

PANTOCRINE
露國國立○○研究所創製
造血·強壯·強精特效劑
花鹿茸精血
판토크린
元賣發入輸直
共生藥業株式會社
京城鍾路一丁目七一
電光③二五四七番
振替口座京城22002

藥先送服藥後代金支拂

藥効가 조와서代金이잘드러왓슴으로
第二回代金全額 後拂販賣를發表함

○엇던補藥이던지 藥効가 다 廣告와가트면 누구던지 다 補藥을쓸것입니다
○그러나 百補丸의効力으로 論하면 廣告보다事實은 露骨的으로 쓰지못하는더神効한點이만습니다
○그래도 間或廣告와가튼지 안가튼지 疑心하는 사람도잇슴으로 本社는 藥効를 一層더 確證키爲하야 昨年이때에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한結果 後拂注文이多大하야 本社는 累試累驗한 百補丸의効力을 絕對自信하고 多數人士에게 藥을酬應하엿든바 果然藥効가조타고 그代金이참잘드러오며 感謝狀이踏至함으로 百補丸은男女老少 누구에게던지 잘마저서 大神効를보는참名藥이라는自信이 더욱더욱 確固하게되엿슴니다
○그럼으로 第二回 代金全額後拂販賣를 欣然히發表하나이다
○百補丸의効力이 事實로 조타는것은 이로써確證되엿슴니다
(第二回도 亦是一萬人限이오니 下記注文法及規定參照하시요)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菓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의効力은 이러케광장합니다
누구나칭찬하는百補丸의大効力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虛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고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체증 속병 등으로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업고 허리가아프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記憶力이不足할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됨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압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 다잘補하야 참말 完全히 陰陽變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過飮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效합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消滅됩니다
一、男女老少를勿論하고 虛弱한분에게는第一입니다

代金後拂規定及趣意

百補丸의 大特効를 天下사람에게 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 만은 試服後代金을꼭잘送金하여주실 人士는官吏層이지 私民層이지富者이지紳士이지 無産層이지 商工人이지알지못하겟슴니다 그러라고누구에게든지 後拂條件으로 送藥할수는 업는 形便인故로 財産有無와信用有無를 不顧하고各界에 代表的左記人士에게 見本的으로 後拂販賣하난것입니다 全朝鮮道知事全朝鮮郡守全朝鮮面長 全朝鮮官公立學校長全朝鮮金融組合理事 京城市內町總代 全朝鮮各面一等納稅人께만 限하야 後拂注文에應하고 그他諸氏에게는 罪悚하고未安하오나 商業上不得已한事情이오니 普通注文으로 해주기를伏望하옵나이다 後拂注文도試服後代金을先金으로하거나藥이 不合意하면 返藥하거나할것이고 普通注文도 代金을先金又는 引換代金으로 藥을受取하엿스나 萬一이라도藥이貴意에 不合하시면返藥하시고곳全額返金請求를하시게 規定이되엿사오니 後拂이나 先金이나 代金引換이나服藥家의 利害得失은꼭가슴니다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먼저『後拂注文』이라쓰고 藥代金十圓은 試服後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 보내시요 送費七十錢은 先金으로、오니 郵票로나 振替나 爲替로 先送하여주시요 注文法은 貴氏名이며 官吏면 官名을 明書하여주시고 一等納稅人士이시면 告知書나 地稅證明書等을 同封하여주시요 注文書에는必히捺印하여주시요

普通注文法

平和堂振替五番에 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先金十圓을보내주시든지 葉書로百補丸特製一劑代金引換付送하라하시오

普通注文人께特典

普通注文人께는 送料도 本社負擔하고 또 本社苦心發見中인 藥始皇이 愛用한 九重宮闕에 秘中秘로 秘藏되엿든 秘方藥超特强精補藥試用小一箱을無料로 添呈합니다 (期限當分間)

主要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
三、全朝鮮十三道商工獎勵館 及 商品陳列所
四、京城驛賣店
五、全國和信連鎖店

藥効가 廣告와 다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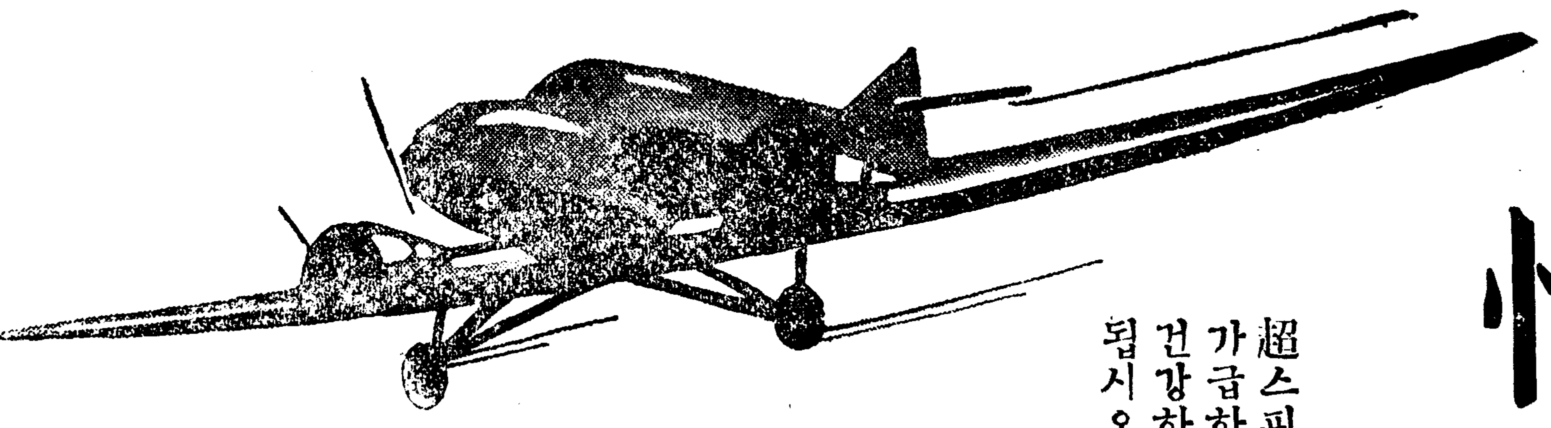
藥價 一劑特價 十圓 量用 二十圓
三劑以上 共同注文 周旋하시면 周旋人께 一劑無料進呈

藥注文 送金은 左記三處中便宜한口座에
一、振替 京城 五番
二、朝鮮銀行本店內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平和堂

身體虛弱이過度하여지면後悔莫大이오
百補丸一劑못쓰면平生의恨이됩니다

京城府堅志町(五、二) 電話光六三二番·振替五番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保健報國
世界的名藥
慢性胃腸病速効



超스피ㅣ드時代병은한시 가급하오니곳약을쓰시와 건강하고튼튼한몸이 됩시오

主治効能

겡오ㅣ의효능

만성위장가다루(慢性胃腸加答兒)
위괴양(胃潰瘍)
위아도니ㅣ(慢性胃弱)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위하수증(胃下垂症)
신경성위약(神經性胃弱)
급성위장가다루(急性胃腸加答兒)
식용업는데(食慾缺乏)
소화불량(消化不良)
위확장(胃擴張)
기타위장병(其他胃腸病)

세계에서유명한훼쮸라는약제도만히들고 신발명한귀중한재료 만만히든약이오

겡오ㅣ

약을쓰시고만일무효면 어더한 책임이든지 짐니다

약을쓰시와만일 무효면엇더한책 임이든지집니다

鎭痛 補胃 消化 蘇生

체증속병엔 겡오ㅣ가제일

물가가점점폭등하여 가니지금곳안쓰시면 약갑이몃배나오름니 다가정상비약으로도 꼭필요합니다

무병이 장차오신의무홈이라 몸이불편하면 팔글보국이 태산갓흔들무엇하며 진수성찬이압헤놀비하야도무심하다 음식을먹은것이 잘소화가되여야 음식이맛도잇고먹은것이살로가게된다 몸이튼튼하고정신이좃코 만병이혹러지고 무슨활동이든지할수잇다 세상에병으로 고생하는분은 모다 처음에는 위장병이원인이되는것이다 위장이약하야속병이니 소화불량이니 체증이니적이니 가심아리니 헛배가부르니 냉배를알느니 신물이 올나오느니하야고생하시는분이 위산이나 소다나 약재료가 낫버서회리나만케하야 파는약갓흔것을써서 점점위장을약하게하고 중독이들고 다시도지고 약만떼면 또아푸고하야돈만허비하고 약을언제든지 떼일줄모르고 세상을비관하시는분은 신성당의겡오ㅣ를쓰시면 아모리오라고 위중한 속병제중이라도잘낫슴니다

약갑
완고용(頑固用) 삼원
중승용(重症用) 이원
경증용(輕症用) 일원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병이좀심하면삼원분안세가좃슴니다

京城西大門入口제일큰신축백옥양관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振替京城四九五〇番

약효를사실로증명하는 이감사장을보시요절대 자신을가지고권고합 니다

◎만급성위장가다루(胃腸加答兒) 배가장아푸고 설사가나고 속이불편하고음식맛이업는분은 겡오ㅣ를 쓰시오

◎위 약(胃아도니ㅣ) 음식이 장 언치고 칭이괴이고 음식맛이 업고한증세에 겡오ㅣ를 쓰시오

◎변 비(便秘性腸加答兒) 뒤가조하고 순하지안코 배가장불편하고 두통이나고 기운이업는 증세에 겡오ㅣ한제로 잘낫슴니다

◎위확장(胃擴張) 음식을먹어도 헛헛증나고 배가부르고 가슴이아푸고 몸이마르고 설사가나고 음식을대하면 먹기실코할증세에겡오ㅣ를쓰시오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음식이 내릴때가되면 가슴이아프고 신물이 올나오고 가슴이 쓰린증세에 겡오ㅣ를 쓰시오

◎위괴양(胃潰瘍) 물난마서도 도로올나오고 가슴이 아푸고 아모것도 먹지못하고 파리한증세에 겡오ㅣ를 쓰시요

◎위하수증(胃下垂症) 헛배가부르고 밥이나리지안코 가슴이 갑갑하고소화가 안되는증세에 겡오ㅣ를쓰시오

◎위장결해(胃腸結核) 배가항상아푸고 몸이파리하고 구미가업고 설사가나고 뒤에피가나오는 증세에 겡오ㅣ를쓰시요

◎식욕부진(食慾缺乏)

◎식욕부진(食慾缺乏) 음식맛이업고 기운이업고 소화가안되는분은 겡오ㅣ를 쓰시면 살이찌고 음식이쑥쑥잘내리오

철맞난온실꽃 『덴도루붐』(인도가원고향입니다)

상식으로알아둘 젖이 딸리는 원인

일상생활부터조심해야된다

조고마한데도 모성애

애기가진 어머니의 제일 요긴한 소원은 젖이 만히 나서 애기가 그 젖을 먹고서 무럭무럭 크는 것일 것이나 불행히도젖은 흔한분보담도 귀한분이 더 만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애기를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안타깝게 울리게 될때 아모리 철석가튼 간장이라도 쪽쪽이 녹아서 업서지는듯하지 안 할수업슬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젖이흔한이도 잇고 귀한 이도 잇습니까? 물른 체질、건강등 여러가지의 관계가 잇갯지요만은 일상생활의 주의로도 영향이 됩니다。

적당하게자극시키자

위선 애기를 배시고 게실 때부터 매일 한두번씩 알콜로 젖꼭지를 씻스십시요。 그러고 젖꼭지가 파무치어 잘 나오지 안흔 손까락으로 자조 자바리어 두십시요。 그대로 두엇다가는 갓난이가 잘 빨지를 못하야 고만 젖이 안 나게 되고 또 상처가 생기어서 드디어 젖이 졸아 부러 버리기도 쉽습니다。

젖통을편히쉬게하자

젖을 빨때는 첫 꼭지를 흥친 물리고 쪽쪽 빨아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빠는힘이 세어서 젖을 자극하고 또 몰어서 생채기도 날렴려도 업습니다。 그러고 한쪽을 실컨 빨리고는 다빤 다음 다른 한쪽을 빨리는 것이 조흡니다 될수 잇는대로는 이쪽저쪽으로 왓다 갓다하지말도록해야 합니다。 젖통도 좀편히 쉬어야 합니다。 빨앗다·말앗다 하는것은 못씁니다

과한노력과수면부족

몹시 과로를 햇다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해도 젖이 곳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감정이 극도로 넘어가서 흥분되기만 해도 젖이 줍니다。 생활이 급히 변하는것은 재미업습니다。 신경쇠약은 물론입니다。 그러다고운동을 통으로 안코 맛난음식만 먹는다고 젖이 만히 나느냐 하면 그러치도 안습니다。 넘어 운련을 해도 못쓰지만 넘어 편해도못씁니다。

먹는데도 관계가잇다

젖이 만히 나는데는 첫재 무엇보담도 건강하고 영양(營養)이 조하야합니다。 젖먹이를 가진 어머니는 식욕이 버썩 늘어서 그전보담 배나 먹는데 그러케먹어야만 젖도 잘 날 것은 사실입니다。 먹는 것은 하필 갑비싼 고기반찬이라기보담도 좀 영양을 보아서 몸에 조흘 것이 조흡니다 되장국이나 되장찌개도 조코 떡가튼 것도 조코 미역국가튼 것도 조흡니다。

적당하게운동을하자

먹기만 잘 해도 소용이업습니다。 그것을 소화시킬만큼 운동도 필요합니다。 물론 공기가 깨끗한 뜰이나 산가튼데로 산보를 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업게지만은 그러치 안트라도 다소 운동만은 주의해야합니다。 너무 심한 정도만 아니라면 집안에서 살림사리로왓다갓다하는것도 무방합니다

안나더라도늘빨리자

젖이 안난다고 고만 빨리지안해서는 젖이 정말로 말라붓습니다。 나든지 안나든지 자꾸 빨려버릇을해야만합니다。

검사마튼숫이 이익이됩니다

숫은 작년세말에 물건이적어서 갑시비쌋습니다、그러나날세가조코 갑시비싼데 영향을바더서 각지에서 숫을만히만드러내여닷고 서울로서울로 올려보낸까닭에 요지음은 숫사태가 나고잇습니다 그러나 작변에시세가조와텁 숫장수가운데는 아직도 나븐숫을 비싸게파는곳이잇는데 이들은 조흔숫을 팔기보담나쁜것을 팔므로서 이익이만흔까닭에 물건이 모두 보잘것업는것만 나도라단입니다 이러한 형편임으로 경기도검사숫치라하야 이러한나쁜숫을입새버림으로 갈도 좋일하고물건도 검사를맛도록 된것이읍니다。 가정에서는 검사마튼숫을 가저다달라고 주문을 하더라도 나쁜장사치들은 검사맛지안흔숫을 검사마튼숫치라하야 가저다주는수도잇습니다。 그러므로 각가정에서 이러한장사치들에게속지말도록 주의하지안흐면 안될니다

검사마튼숫은 경기도임업회에서 지정판매인에게만 팔도록하며 종류와등급과 중량을쓴 꼬리표를 다러두엇스므로 한번보면 곳알게되여잇습니다

숫을쓰실때는 이러한것을주의하면 속을염려는 절대업습니다다

三月二十九日부터六日間

第五回中國料理講習會

會費 一圓五十錢 定員 五十名

塲所 京城女子基督青年會館

主催 京城 YWCA

가정의 항

기생충을어찌할까

問 저는 이십이세된 남자인데 수년전부터 회충과 십이지장충이 잇다하야 몃달전에치료하얏는바 효력을 보지못하얏습니다 살색이 누렇고 잇나금음식을먹고나면 배가아픕니다 치료법을 가르처 주시옵소서 또 그러고 약십여일전부터 대변을보려고 변소에가면 누기는조금하나 힘을써도 잘뇌이지안하야정신상고통이심합니다 원인과치료법을가르처 주시기바랍니다 (延安讀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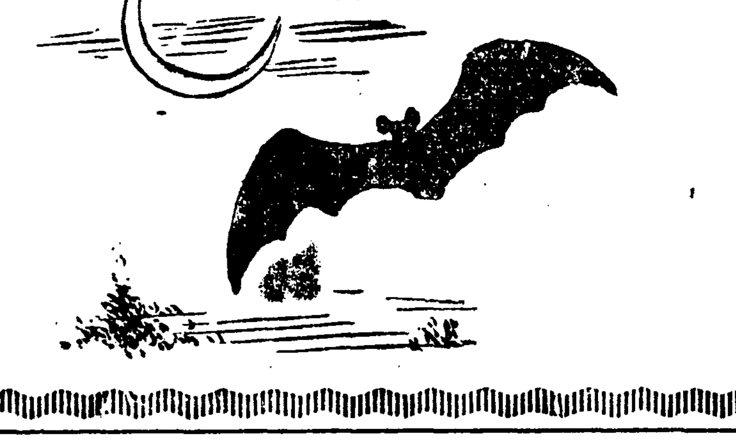
答 얼굴빗이 누러코 또대변을잘보지못하며 힘이든다고요진찰한결과 회충과 십이지장충이잇다하니 그버레를 치료하여야할거십니다 한달전에 치료를하얏스나 효과가업다 하오니 엇더한방법으로 치료한지 모르겟스나 십이지장충은 가정에서는완전히 치료할수업고 병원에입원치료하여야 될거십니다 또대변보기힘드는것은 빈혈증으로그런것갓사오니 기생충을 치료하야빈혈증이 회복하면 제절로나흘거시오니 안심하십시요 (醫學病院長 朴秉來)

우리차지

"금낙시바눌"

초생달은
금낙시바눌
무엇을 낙글랴고 나와
잇나
거미처럼
얄밉기도하다
올빼미가 걸리랴나
박쥐가 걸리랴나

(글쓴사람 전소초)



통조림 (간쓰메)

속지안케사자면 ②

洪善杓

간쓰메가 우리생활에 이러케 필요한물건이되여잇지만은 통속에드러잇서 눈으로 실물을 직접보지도하고 다만 신용관계로 그거죽에붓치여잇는표만보고 사서먹게 되는까닭으로 신용이란 것은 상점에따라 다ㅡ잇다할수 업는일인고로 사는사람으로서는 이에대한 지식이필요할줄로 생각합니다 첫재 먼저생철통이녹이슬지안코 거죽에붓친 표가 더럽지안코붓친지가 얼마되지아니한것을 택하는것이 조흔것은 동녹이낫다든지 혹은통이찌그러저서 허리어피라든지 이궁통이저궁통이기 모두찌그러젓스면이것은 무를것도업이 맨든지가오래되엿거나 그러치안흐로 습한곳에두엇든것이 분명한까닭이라 이럿게된것은 아무리하야도 내용이완전하다 할수업습니다 그러나 거죽에 부친표로 말하면 완전한 신용잇는물건이면 만들때 한번붓친표이외에는 다시붓치는일이 업지안흔 그러치못한상섬에는 표를메작식 더ㅡ두엇다가 더러우면 다시붓치는일이 만히잇습니다 그러한까닭으로조이표를 붓친것보다 펜키라든지 에나멜로 직접통에표를칠한것이 조이붓친것보다 오래된 물건을 아래내기쉬운것이올시다

둘재 통에뚝겅이나 밋의중앙을 손끄드로 눌러보아 쑥ㅡ들러가거나 불숙올러오지안코 수평으로 평균한것이 다소조흔물건이라 하겟습니다。이것은 통을 처음에 맨들때에 통속에잇든 공기를빼여내는것인대 만약 통속에잇는물건이 무슨관계로든지 상하게되는때에는 까스가생기여 팽창됨으로 뚝껑이 불룩하게솟아 놉게될지경이면 완전치못하다는것보담도 썩은것이분명하며 뚝껑이 수축하야 평면이상 쑥 드러가게된것이 완전하다할수잇는것은 그안에잇는물건이 수축되는증거라할수잇습니다

셋재 통 한개뚝껑이나 밋바닥에 송곳구녁은막은자리가 한개이외에 또 잇는것은 완전치 못한것이라하겟습니다 송곳구녁한개는 처음만들때 공기를 빼고 막은것이지만은 그외에또ㅡ잇다는것은 중간에부패하야 공기를또 다시 빼여내엿다는증거라 할수잇는까닭으로 이러한물건은 참으로 위험한것이라 하겟습니다

넷재 통의뚝껑을 젓가락끄트로 두들겨서 그소리가 맑어서 양철소리만 나는것이 조코 더덜러덜하야 소리가둔하게나는것은 그안에 까쓰가뚝껑까지 점축되얏거나 물건이 상해서 부푸러올라 뚝껑까지에까지 점축되것의 증거이라하겟고 통을흔드러보아 국물이잇는물건은 흔들릴터인대 그흔들리는 소리를 듯고 알수잇는것은 국물이맑으면 흔들리는소리가 맑게들리고 석어 탁하게된국물은 흔들리는 소리가 둔하게들립니다。

다섯재 통에붓친표에 용량과 제조업자의이름이 분명히 잇고 어떠한것은(검사)(檢査)라고 따로 이도장을 찍은것을 볼수잇는데 이것은 감독관청으로서 상점으로도라다니다가 완전하다는증거를만드러주고가는까닭으로 안심할수잇습니다。

新發賣・新時代의濃化粧用

資生堂 やよひ白粉

白・肌色 五〇セン 大・一円

濃化粧을 쉬웁게할수잇고 鮮麗하게되는 새로운白粉!

□댁고떠짐은더말할것업는獨特한油性白粉임으로白粉下크림을바를必要도업고簡單하게化粧을할수잇는理想的濃化粧料랍니다

全國各地資生堂連鎖店에잇다

東京 資生堂 銀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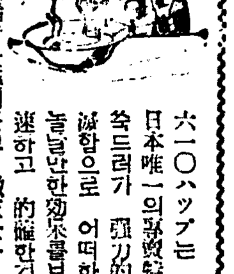
京城保育學校 生徒募集

◇第一學年五〇名選科若干名
◇出願三月三十一日까지
◇試驗四月一、二兩日
◇詳細要問本校京城清進町一八八

가려웁고 쑤시는못압흔 皮膚病에 꼭쓰지아니하면 아니될

專賣特許 六一〇ハップ (로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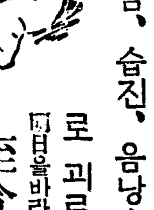
皮膚病으로 근질근질가려웁고 쑤시는못압흔것은 무서운 絲狀黴菌과寄生虫이 皮膚의深部에棲息하야 血管과神經의組織을 침해함으로 此病菌을 殺滅치안흐면 決코 皮膚病을 根治할수업는것이다



六一〇ハップ는웨잘듯는가

六一〇ハップ는 研究에研究를거듭하야 近代化學의 極致를다한 日本唯一의新興特許最高權威의 貴重한藥으로서皮膚의深部에 쑥쑥드리가 强力의殺菌作用을 發揮하야 이執拗頑固한病菌을 撲滅함으로 어떠한 몹시 가렵고 압흔것도 今時에 놀날만한效果를보는것이 이藥의特徵으로 治療가 速하고 的確한것은 한번써본분은 누구나이것을 世上에稀貴한藥이라고 激賞한다

皮膚病으로 무좀、습진、음낭습진가든 로 괴로워하는분은、何日을바라지말고 至今곳試用하시라



벼룩、빈대等에刺傷에도即効가잇다

◎每日洗手할때 六一〇ハップ를 一二三滴쓰면은 皮膚의肌理가엽서지고 주름도업서저 각근듯이 艶麗한 어엽뿐 얼굴이된다。

◎치운겨울날에도 六一〇ハップ湯에 沐浴을하면 身體에溫氣가잇서 언제까지든지 溫泉氣分에빠저 身體는 漸漸健康해지고 또感氣를 豫防도되며 不過僅少한 費用으로 一家團合하야 滋味잇게 지낼수잇다。(詳細說明書를보시라)

▲六一〇ハップ의主治効能

皮膚病、冷症、婦人病、神經痛、胃腸病、動脈硬化、痔疾、凍傷

醫界의泰斗
婦人科 川地醫學博士御推奬
皮膚科 長谷川醫學博士御推奬
內科 細瀨醫學博士御推奬
小兒科 森醫學博士御推奬

價藥 三十五錢。一圓。二圓三十錢。三圓五十錢。六圓。

發賣元 名古屋市 武藤鉦合名會社藥品部

(六一〇ハップ는各藥店에잇습)

肌アレに大評判

구리신의 二重作用으로 거침을 몰은다

(一)잡티가끼인皮膚에그대로化粧을하면効果는不充分하다 明色구리신、크림은가벼히문지르면 닥거내는것뿐으로 그特有하고强力한 淸掃作用으로皮膚의 深底부터 깨끗하게掃除한다

(二)同時에獨特한美容成分이가장効果的으로作用하게한다 皮膚가深底까지깨끗해짐으로、美容成分이體內 고소이充分이流通되여効果를 마음것나타낸다 이合理的二重作用!

普通크림보다三四倍나德用이다

手や腕のアレ防ぎに 洗濯、설거지를하는이의손이나팔둑은 거칠기쉽습니다。이러한이는 朝夕으로두번식 明色구리신을바르고、脫脂綿이나까ー제로닥거냄다ー이러케만하면아모리치운때라도손이나팔뚝이거칠지안는다。

お子方の洗顔に 虛弱하고거칠기쉬운아기들의皮膚ー洗顏은明色구리신에限한다 溫水도 물도全혀必要업시이 크림을若干 문진느고 脫脂綿이나까ー제로닥거내뿐으로 얼골이深部에서부터 어여뿌게되고 어떠한추위에라도 全혀거침을모르게된다

おヒゲ剃り後に 面刀後에明色구리신을 얼골에바르고까ー제나脫脂綿으로 닥거내면溫水나冷水로싯슬때보다 比較도못할만큼 얼골이深部에서부터 어여뻐지고 面刀자욱이생겨도皮膚를거칠게할念慮가조곰도업다

家內中で使へます 明色구리신은 用途가非常히넓어 一罐만잇스면家庭에서 모도쓸수잇다

이봄에一罐 食口마다거칠을모른다

明色クリシンクリーム 明色구리신크림

補血強壯 ブルトーゼ 부루도ー제

各大學病院指定常備藥

造血아웃호루몬

「活動の源泉」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B1218

文壇主流論에對하야

—휴매니즘에對한一考察—

⑤ 韓雪野

갈팡질팡하는 요사이의東京文壇에서는 휴매니즘은 민족을떠나서는 存在할수업다하야 두려쥐가리 줄으를파고들어가고잇다 이良心的 進化的이라는사람들도 휴매니즘은 勿論 조키는조흐나 그것이 어떠케 대중을把握할가? 即一部의인텔리뿐아니라 어떠케 廣大한讀者를 가저낼가? 하고 다만그方法論에만 關鍵이걸려잇는것가티 떠들어대나 事實은 그方法을잡아내지못해서 多數를把握하지못하는것이아니라 實로 그휴매니즘의 根底가唯心인데에

一廣一 汎神論者를 가저내지못하는理由가 潛在하여잇는것이다。即唯心的인휴매니즘은 物質的인本質에沿하야 나아가지못함으로 現實에存續할 生理가업는것이오 따라서 多數한讀者를 잡아내지못하는것이다。휴매니즘은 말하자면 文學上의 汎神論가튼것이다。汎神論은 그範圍가 너르다가튼면서도 信仰의內容으로보면 一神論보다훨신 素朴한것이고 浮動性이만흔것이다。그러므로 汎神論은 人間의知慧가 어느만치 發達한社會의 宗教일수는업다。

휴매니즘도 前代의 그것만치나마 現實에文學할수업스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人間探究云云이 혀되이人間을 人間一般으로

一歸一 納하라는 觀念論인 것가티 휴매니즘의 人間性云云도 抽象的觀念論임에 지나지안는다。그러므로 所謂人間一般이라는것을 實際的으로 表現한作品이 前代에도 업섯거니와 今後로도 決코 업스리라고 나는 믿는다。

萬一 이제새삼스레 휴매니즘의 이름으로서 作品을보여주는 사람이잇다고하면 그作品은 心境小說이나 私小說이나 個性尊重의作品임에 그칠것이다。假使 百步를 나아가서 거기다가『리알리티』와 社會性을 賦與하는 扱群의大家가왓다 하더라도그이른바 리알리티와 社會性은 現實의表面에 現顯하는『現象』의反映임에 그칠것이니 그러한것은 當然히 휴매니즘의 根底를이룬 唯心論가티 現實의 本質的進行에依하야 消散의 致命傷을드러내고야말것이다。

톨스토이로 最高峰을삼는 前代의 人道主義가 놀라운『리알』과 社會性을 取入하므로서 文壇上의 貴重한 市民權을 어덧다하더라도 그根底의 唯心論때문에

一二一 十九世紀의 健康한 行步에 依하야 그一時의 燦爛함은 閃光을 일허버리고말지안햇는가?

한개의 人間은 決코 精神만으로 生存할수업는것이다。그와마찬가지로 한가지꼿은 決코 空氣만으로 살수 업는것이다。물과 養分과 溫度와 光線等으로서 비로소 그 生理를 維持하는 것이다 휴매니즘의 무리 비록리알과 社會性이라는 溫度와光線을 가젓다 하더라도 그뿌리가 全혀心理의溫床에 바혀잇기때문에 結局은 말라죽고말엇스니 그것은即 어떠한 文學藝術이고 참다운生命을가지라면 반듯이 科學的眞이라든가 本質及法則의 世界에沿하야 生成發展하는 健全한生理를 가저야한다는 事實의 反證이다

그러므로 나는決코 휴매니즘文學의 再生을 믿지안는다 即後代의 휴매니즘이 소리만크고 뚜렷한形態를 남기지못하엿슴은 아니라 이제새삼스레 휴매니즘을 부르짓고 또그것이文學現象으로 登場하야 가사 前代의그것보다 좀더

一明一 確實한形態를가진다 하더라도 唯心的인前代의 血統에 依하야 現實의本質的進行의 아메서 自然消滅되는 弱點을 驅使에 잇서서 曝露하는 一路밧게 업슬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萬一 새로이러나는휴매니즘이 取入하는 이른바그社會性이『本質과法則의世界』의 把握에서 오는것이라면 그作品은 벌서 이른바 휴매니즘의 이름으로서 불려진것이아니니 即必然的으로 文學藝術의 正統的인 푸로·리알리즘속에 解消되고말것이다。

그러나 어느點으로 얼른생각하면 휴매니즘文學의 再生은可能할것가티도하다。即 現代와가티 大多數의 人間性이 검은장막에 눌린때가업고 人間이란그 本來의 面目이 오늘가티 商品化되고 貨幣로 換算된때가 업스니 새삼스레 人間을 부르고 人間性을 차즐법도 한일이며따라서 人間性의 擁護인 휴매니즘이 모든文學流派를 리-드하야 最前線으로 抽出되여나올법도한일이나 그러나 觀念的

一唯一 心的으로 人間과人間性을 絕叫해서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아니다。心的希求와 文字的叫憐과 口號的待望으로서 人間의理想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휴매니즘이 우리에게 던저줄선물은 너무도 큰것일것이며 또適切的樂觀일것이다。그러나 心은物을 떠나서 存在할수업는것이오 文字나 言語는 眞實과實際를 붓잡지못하고는 아무힘을 가지지못하는것이니 오직 마음과말로서 악을쓰고 힘을써보낫자 무슨 보람이잇스랴?헛울거기일뿐이다。心은物의屬性이니 心이업서도物은存在하나 物이업시는心이存在할수업다。이것은 萬人周知의事實이다。그리고 唯心的인것이歷史의바퀴를 굴릴수업는것도 今日에와서는 常識以下에 屬하는 問題로 되어잇다。萬一 世事가 心이바라는 대로된다고한다면누가 아름답지못한環境을 가진것이랴?

小論評

言語의科學性

如水生

近來에와서 우리의 語文運動이 一般的關心의 對象이되여서 여러方面으로 이것의 整理가 着着進行되고잇는것은 매우 欣喜할바이며 이러한 時機에 잇서서 崔鉉培氏의 손으로된『우리말본』가튼것은 아직 整理되지아니한 우리말의 文法的礎石을 노흔것이며 또한이 大著가 細微한部分에 이르기까지 著者의 傾心注力한바 多大함에 對해서는 누구나 그讚를가지지아니할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著作을 펴여드매 目次의 첫머리부터 꼿까지이르도록 普通 우리네가쓰는 文法上用語를 일부러 純粹한 우리말로 고처쓴것에對해서는 若干의 疑問이 업슬수가업다。첫재 音聲學을『소리갈』이라는등 名詞를『이름씨』라는등 動詞를『움직씨』라는등 이루 헤아릴수업는 이러한 造語가 到底히 우리네의 現代的敎養으로는 알어볼수업게되여잇다。그럼으로 著者도 이러한말미테 반드시『音聲學』이니『動詞』니『名詞』니하는것을 다시 括弧를치고 써너헛다 이러한 著作에잇서서 왜 일부러 이러케 二重의 煩記를하는지는모르겟스나 言語의活用이란 그時代의 社會的趨勢를 떠나서는 存在할수업는것이며 또한 一般的敎育方法과 떠러저서 그影響力을 强制할수는업는것이니 音聲學이니 名詞니 動詞니하면 누구나 다알어도 소리갈이니 일음씨니하여서는 到底히理解할수업는것이다。그러니까 崔氏의『우리말본』을理解하자면 우리네의 文法的基礎常識을 떠나서 소리갈 이름씨類의 이상한말을 배우기에 먼저 時間과 精力을消費하지아니하면 안된다는 悲劇의 關門을通해야할것이다

名詞를 名詞라고쓴다고해서 決코 朝鮮語가 滅亡하는것이아니라 世上이다아는 名詞를 일부러 괴팍스럽게 무슨씨니 올이니하는 硬直品을만드는때문에 朝鮮말의 科學的整理와 一般的理解가 阻害되는것을 事實을 짐작하지안는가?

이러한 作爲는 崔氏뿐아니라 一部의 通弊를 이루고잇스나 진실로 朝鮮말의發展을 생각한다면 이러한非科學的固執은 하로바삐 淸算해야할것이다。첫재 訓民正音御製序文에도『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라고 하지안헛는가? 三思를 促하는바이다。

…山家迎春記…

진달래 ③

(上) 嚴興燮

해버치 하도따뜻하기에 이웃집小與生하나를다리고 北苗山기슭을 엉금엉금 기여올라간것도 벌서 몃칠前의일이다。이기슭、저기슭、소나무뿌리近處、바위틈양지바지엔 진달내 포기들이번즈르 기름이 흘르고 가지마다 공알처럼 훌훌 붉으러올낫다。

『先生님 진달내가 봉지매진 것봐요』

『오냐、봣다!』

『언제쯤필가요이거、일주일 안에 필것두가튼데요!』

『필때되면、피지!꼿피는게 그러케도 조흐냐?』

『그럼조찬허요!우리집 울타리에는 벌서 개나리가 피잔헛서요! 왜선생님 대에도 세가지나 병에꼬자다 디리잔헛서요?』

小與生은 허리를 굽히고 이곳 저곳뒤에다니면서 불퉁하게 봉지매진 진달내 가지를 꺽기 시작한다。

『왜 작구 꺽니!山에 두고보지!』

『가저다가 병에꼬자두면 내일모래는 당장피여나잔허요』

『산監視보면 경친다。구만꺽거라!』

『괜찬허요 꼿좀꺽는데어때요』

小與生은 이곳저곳에서 한주먹을 단단히 꺽거쥐고 조와하며 내게로 달려왓다。

꺽긴 가지끄테 물욱이 올라 번드르하다。

나는 이瞬間 스르르 나의 少年時節이 聯想되엿다。

옛날 우리집뒷山은 野山이면서도 야튼한 바위와 느러진 老松과 넓은 잔듸밧기슭이잇는 진달래山이엿다。

진달내꼿치필때면 나는 다른때보다도 공연이 마음이 더기뻣다。

이웃집芳順과 뒷人山을 마음것 헤매며 진달내를 꺽거다 병마다 꼬자서는 房마다 찬란케는러노코 키도자라지안는 洞里알노픈 개나리 울타리에서 개나리꼿가지를 꺽거다가 진달내꼿병에 가치꼬자노코보면 그 진달내의 자주人빗과 개나리의노랑빗 어찌도 잘어울리여 나의 어린 美的感情을 興奮시켯는지 모른다。

진달내보다 개나리가 언제든지 먼저피엿다 압山보다도 뒤人山이 언제든지 먼저피엿다。

진달내 개나리가 필때면 우리洞里 게집애들은 진달내빗치마에 개나리빗 저고리를입고바구니를 끼고는 보리밧두덩으로 잔듸바트로 산비탈로 논두렁으로 나물을 캐러다니는거시해마다 하는일들이엇다。

나는 꺽거온 진달내를 병에다 꼬자둔뒤 며칠이 못되여빗갈이 變하고 꼿이 시들어 버리면 어쩐지 마음이 언잔허지고 시들은꼿가지를 병에서 빼내버릴때는 공연이 山에서꺽거왓나부다!하고 스르르後悔가떠올라오곤햇다。

어느해 이른봄 나는 우리집後園을 머슴에게 파달라고 하고 山에가서 진달내나무를 대여섯포기 뿌리채 뽑아다 심엇드니 진달내는 웬일인지 山에서피는놈처럼곱고 아름다운빗갈을 나타내지 안코 찡그리며우는상을하고쓸쓸하게 피엿다간그만시들어말러죽어버리곤햇다。

그때부터 나는 꼿이란것은제난곳그대로두고 제멋대로 피게내버려두어야 할것이거니 생각햇다

그럼으로 진달내는 山기슭에 피여나야 그情趣가 더욱빗나리라 생각된다

朝鮮은 山의나라다。아페도山 뒤에도山 山을넘으면 또山 들을지나면도山 江을건느면 또山 어디로가나 山이보이지안는곳은 업다。큰江도山미트로 구비돌고 큰都市도 山을依持하고 發展되엿스며 名勝古蹟과 山과 由緖업는곳이 업스며 過去의 모든 偉大한人物들도 山과因緣업는사람이업다。

이러한 山의朝鮮을 燦爛한게 빗내는것은 진달내꼿이다。진달내는 어디까지든지 朝鮮의꼿이다。朝鮮의情緖를 가장 잘나타내는 꼿으로 진달내를 凌駕할者 누구인가?

朝鮮은 山의朝鮮인同時에 진달내의 朝鮮이다。

學生作品

小品

바다의追憶

全州新興校 文炳來

지난날 즐거웟든 바다의追憶! 지금 幽閉된『死』의門을두들기려는老軀가아직도 가지안는 靈은紅潮를 여읜 넋우에느끼며 바다 그옛날의 아룽진 記憶을 불러오도다

◇

바다!

정답게 찰락이는 물결의바다 갈매기 帆船을 돌며날리는 한나마디슬플제 靑春의꿈들은 華제 巧藥園과도가티 限업시 麗하게 기퍼만 갓도다

◇

한늘을잡근 靑籃빗바다우에眞紅빗浮萍을 띠우고

그때에나는 榮華스러운『젊은』의 情熱을 뿜엇다

旭日의 고요한 아침과 落照의 서글픈 黃昏은 靑春의 노래속에서 久遠을向하야 한는적엿도다

◇

달비치 숨어버린 海邊의 한밤!

『캠피파이어』의 요란한잔치도 꼿난지오래인호젓한 바닷가 無邪의 聖夢들이 벌려진 帳幕속에 한들-그리는 불빗들이웨 그리도 閑暇하드냐?

지금은 가버린 그이를 이끌고 人跡이업는 되지안흔 갈대의덤 女숭을 더듬든밤

流星이 머무는 海岸에 海藻의냄새 향기-로웁제

소곰섞우에 잠드른 船夫의꿈도 詩스러웟-을것이다

◇

기꺼운 그밤

아느한城속 燭불아래 고요한 微笑와가티 해죽이웃는 情緒의 七絃琴을 타고 두뚤은 銀河의 고흔 어둠을 헤매엿도다

◇

별비츨 慾心내는 그이의瞳孔 幽邃이 보일듯 간즈럽운恐怖가 호를때마다

어둥속에서 자르……우숨을띠우고

바디ㅅ버레 明滅의 어여쁜曲線을그리며 사랑을 아는 젊은이의 그밤은 짧엇다

◇

여름이 올때마다 바다는 즐거웟건만 그어느해 나의넉은 俯仰과가티 외로웟다 追憶을울리는(泣) 모래밧우에 나는 예자진 눈물을 뿌리며

나와더부러 뛰놀든 그이의墓아페 드리려고

素朴한 바다의禮物을을 쥔는 몸이엿도다

◇

노래와 꿈이 가버린곳에 哀愁의 波濤소리만 들린다

늙은몸 호올로서서 凋落의슬픔을 안고 피어린 잔(盃)을들어 無常을 외우나니

期約하고도 시퍼라 까마득한 後生을! 後生!

◇

아!나의아페 永遠히 움직이지안는바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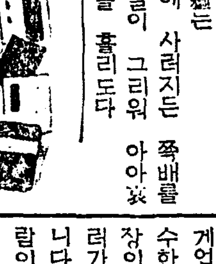
그대도 아름다운 過去를 가진일이 잇는가?

雅謔한 이야기까지 할줄알는가?

가버린 바다의 덕업는 歷史여!

그이의 祭祀를 지키며 늙어온 오늘의 老爐는

水平線넘어에 사러지든 쪽배를 그리며 옛날이 그리워 아아哀殘한 눈물을 흘리도다



▲朝鮮賣藥俱樂部 三月號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二五 朝鮮賣藥俱樂部社 振替京城八五四○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月刊野談 四月號(內容)佩鶴의砒霜 白雲과陳摩 處貞 첫날밤에매진詩約 實話=育父를救出코저 殉教者의누이 中國野談=楊貴妃等 其他 發行所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月刊野談社 振替京城二六三五二番定價二十錢 送料一錢

▲非常時局に際して政黨の革新を叫ぶ 衆議院議員、肥田琢司著 發行所 東京市神田區三崎町二ノ一六 信正社 振替東京八五六一五番 定價二十錢

▲批判 四月號(內容) 東亞、中央의大衆的討議、時事新報의隆刊顚末記、基督教의暗黑面、軍部의政治的動向、三中全會와日中外交의轉換、風雲이急迫한極東情勢、朝鮮文化와新휴매니즘論、創作=人力車外數篇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四六 批判社振替京城二三七八七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震檀學報 第七卷(內容)麗宋貿易小考 松江歌辭의硏究(三完) 三韓問題의新考察(六)李朝建國의硏究(三完)等 發行所 京城府城北町一三三 震檀學會 振替京城二三一九○番 定價七十錢送料六錢(發賣所 京城府寬洞町一二一 東光堂書店 振替京城一六一二一番)

▲基督教報 第一○○號(週刊)發行所 京城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教報社 振替京城二二五九○番 定價一部五錢

▲少年時代 新春號 發行所 平北宣川郡深川面樓星洞八六九 少年時代社 振替京城二五三九六番 定價五錢

市內各中等學校入學試驗問題 ⑧

(合格)

(中央高普)

〇陳列品の多種多樣で、しかも其の數量の數限りもないのは——世界の大博物館といはれるだけあると思ひました。

〇彼は先づ近所の河に浴し——其所にゐた少女のさゝげた牛乳をのんで元氣を回復した。

一、左ノ文ヲ讀ンデ次ノ問ニ答ヘナサイ

時は天正十一年四月二十日のあかつき大岩山のとりでより、幾頭かの馬をひきて余吾湖のほとりに下れる七八人の兵卒あり。水際に寄りて馬の足を冷さんとする折しも (イ)思ひもよらぬ敵の一隊 湖に沿ひたる一筋路を急ぎに急ぎて進み來る。あわてゝ逃げんとすれども (ロ)時既におそく 大方はやにはに斬倒されたり。危く逃延びたる一二の兵卒、はせもとつて(ハ)急を告ぐればとりでの守將中川淸秀、士卒を指揮して防ぎ戰ふされども不意を討たれし我の軍に淸秀等の奮戰其のかひなく、淸秀は討死してとりでは落ち戰は午前のうちに終りぬ。寄手の大將佐久間盛政は、今日の戰に勝ちほこり、明日は進んで賤ケ嶽のとりでをおとし、(ニ)一擧に敵をみぢんにせん と自らは尾野路川に 野營し、要所々々にそれぞれ將兵を配置したり。夜ふけに及んで、陣營を守れる兵卒の一人、ふと東南の方を望み見るに美濃路の方面に當りてたいまつの光おびたゞしく、何とも知らぬ物音ざわ〳〵として夜の靜けさを破る。こはたゞ事ならじと、尾野路山の本營に急報すれば、盛政直に物見の兵を出してうかゞはしむるに、こは如何に、降つてわいたる敵の大軍木之本の邊に滿ち〳〵たりと報じ來る。木之本には秀吉の來れるなり。

(1)コノ戰ノアラマシヲ列記シナサイ

(2)傍線ノ語句ヲワカリ易イ口語デ解釋シナサイ

(イ)

(ロ)

(ハ)

(ニ)

(3)『こは如何に』ト云フイタノハ誰デ、ソレハドンナ氣持デアツタデセウ。

(4)(イ)コノ文ヲ讀ンデ、最モ興味ヲ感ジタノハドノ段カ、其段ヘ『 』ヲツケナサイ

(ロ)其段ガ他ヨリ興味ヲ感ジタノハ何故デシタカ

二、何ニツイテ、或ハ何ヲシテ、コンナ感ジヲ抱イタカ、左ノ語句中三ツヲ選ビ、ソレニツイテ自分ガ實際ニ出會ツタコトヲソレ〳〵一番短ヅツケテ簡單ニ書キナサイ

1、體が震つてゐる。

2、たのもしく思つた。

3、目に見えるやうな氣がした。

4、便利を感じた。

5、感歎した。

三、次ノ文ノ中デ假名ノトコロニ漢字ヲ入レナサイ

(一)敢存(エイセイ)等の自治(ダンタイ)の事業は、地方人民が(イツパン)に之を(ソンチヨウ)し、之に(ケフリヨク)することに、始めて其の(カウクワ)を完全に(ア)げることが出來る。

(二)商人たる者は、よく共同生活の眞意義を(ワキマ)へ、品質のよい品物をなるべく(ビンソク)に供給して、廣く(コウシユウ)の需を計らなければならぬ。 以上

作文

題 讀後

算術科

(第一日 時間七十分)

(注意) 各問共式ト運算ト書

(1) 一秒間＝90m飛ブ鳥ト一時間＝540km 進ム飛行機ノ速サノ比ヲ求メヨ。

答

(2) 甲ト乙ノ比ハ1:$\frac{2}{3}$デ、乙ト丙ノ比ハ$2\frac{1}{2}$:3デアル。甲乙丙ノ連比ヲ求メヨ

答

(3) 或仕事ヲ甲乙2人デシタラ3日間ニソノ半分出來タ。其ノ後ヲ甲1人デ5日間ニ仕上ゲタ。甲1人デ此ノ仕事ヲスルト幾日カカルカ。又乙1人デスルト幾日カカルカ。

答

(4) 甲乙ノ兩人5ト3ノ割ニ出金シテ商業ヲシタラ1410圓ノ利益ガアツタ。乙ハ業務ヲ引受ケタカラ利益ノ$\frac{1}{3}$ヲ取リ、殘リヲ出金高ニ比例シテ分ケタ。兩人ノ分前ハ各何程カ。

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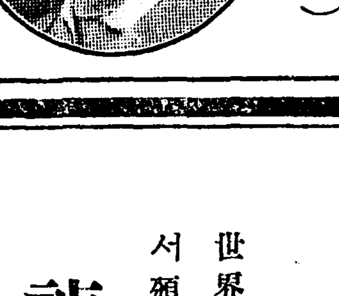
금잔듸푸르러지는봄에

부인병으로하야 남과가튼아해를 못나시는분은더한층 심란하고、고적함을 느끼실것입니다

따뜻한봄바람이불어오면 백설은 살아지고 금잔듸는 푸르러지고 산천초목에는다시싹이나고 꼿치필때에는 여러가지병마에걸니기도 쉽고 재발하기도쉬우므로 활개를치고 횡차게이러나야할 우리조선부인은 특히주의하지안흐면안됩니다 더욱이여성에게무서운부인병은 지금부터차차로성해저서 아름다운육체를버려먹고 부인의매력과건강을불로해하야 임신조차못하게되므로 지금까지 평화하던 가정에생각도안튼 비극이생기는일도 적지안습니다 그러면 이병마가발생하는시기에대하야 일반여성이 꼭알어야할 건강법과 임신을 잘하게하는방법을 말슴드리겟습니다

대하증이훌으는것은 부인병이잠복된증거

—가정에서단시일에 남몰내치료됩니다—



원래에부인의체질은 남자와달너서 생리적으로 복잡함으로항상건강하게할나면 특별한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말하면 남자에게업는월경이나 임신가튼것이특수한생리적작용이고 이기능에고장이생긴것이 원인이되여서 여러가지부인병이생기는 수도만습니다 요새갓치추운겨울에 눈바람이불어오면 두통현기가난다든가 허리와수족이 어름갓치냉하고 아래배가압흐고 신체가이상해지는동시에 안색도낫버지고식욕이줄어질뿐아니라 월새업시 끈적끈적하고 게란흰자나 누런코물가튼대하물이 훌으는때에는 두말할것 업시부인병에 걸린것입니다 부인에게는 이병처럼무섭고 또불행한 일은업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말할 필요는업스나 부인은 일가정의 주부로서 가정의 중심임을 두어개에짐림을 잘하지안흐면 안됨으로주부가 건강하고 안하데는가정살림에대하야 가장영향이크고만흠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명랑과 여성의미모와 자녀출산가튼것을 생각할때는 더한층건강에주의하고 만일부인병에걸린때라도시급히치료하야 그병근을전멸식히지 안호면안됩니다 세상에서가장맘이만흔가정비극의대부분은 남자들이 방탕하는탓이라고말하지만 사실에잇서서는 가정부인즉주부에게 부인병이잠복되여서 부부생활이 맘과갓치잘되지안흠으로 자연히가정에취미가업서저서 쓸쓸하고적적해지는결과、화류계에 친범하고、색주가에가서놀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것은주부가건강치못하고 병으로하야자녀출산도 못하고 부부생활을원만히못하게 되는까닭으로생기는가정비극이니 이러한실례는 세상에얼마던지잇습니다

소일코 오양간곳치기 평소의주의가 제일입니다

그러면부인병을경홀이보거나、경중이라고내버려두어서는안됩니다 원만한가정생활이깨여지기전에 신용잇는약을 잘선택하야복용하고 하로밧비근치해야합니다 부인병에는반듯이 냉물측대하가 흘으는것입니다 이병에걸닌줄을 알거든 될수잇는대로몸을편안이하고 성적자극을떼하고 부인병약으로유명한『명지모』를복용하면 혈액순환이잘되여 몸에원기를도더주므로 전신이더워지고 신진대사를왕성히해서 병근을전부쫓여버리고 활기를도더주므로 차돌고 혈색도조아저서 재차로 기분이조아지고 얼골에화색이차 여성의본질인 미모와건강을완전히회복하야 암흑에싸여든가정에 다시금 봄이차저오는것가티원만해지고 얼마안되여서건강한자녀를 나어서 외집안에화희와서광이비츨것입니다

『명지모』는수십년전부터연구에 연구를거듭하고 실지로경험한바에의하야 부인의체질에꼭맛도록 맨드러서 임상적으로도 제일조혼 화한약의원료를섞거서 근래의최신식방법으로 약을맨든것이므로 다른약과가티 부작용이업고 또한외용약과가치일시적국부료법만이안이고 병근본에측접치료되는 원인료법약이라 수만흔병자가이약을내복하고 근치한실례는너무도만코 전쾌자의감사장과 사진례장만으로도 충분이약효증명이 되오니 여러분가정에 자궁병이나불임증가튼 부인병으로고통하는부인이잇스면 하로밧비명지모를 복용하고전쾌하시기바랍니다 특히조선일보독자에게는 부인병자택치료서를한권식무대진정하고 약을선금으로주문하시는분에게는 송료를부담해드리옵니다(사진은 명지모의약효를증명해주신 여자의학박사 吉原氏)『명지모』는 각지유명약점에서판매하오며 약가는 六日分一圓、十三日分二圓 二十日分三圓 三十五日分五圓이고 특히본포에는 여러분의체질과병세에 꼭맛는가감약이잇스니 본포로주문하고자하는분은 병세만자세히 적어서보내시면 병세에꼭맛는 약을대금인환으로보내드립니다

今日이新聞을

—보시고 帶封하야 五厘切手붓처서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笹岡藥房으로 보내시는분에게 七大醫學博士가 親切히指示하야 朝鮮말로 알기쉽게 자세히쓴 婦人病自宅治療書와 命之母의 說明書를 누구에게던지 無代進呈하오니 하로바삐申込하시오 이婦人病自宅治療書는 笹岡藥房에서 朝鮮婦人에게 衛生智識을普及시키기爲하야 一家庭에 한券식 無代進呈하는것이니 藥을注文하지안는분이라도 申込하기바라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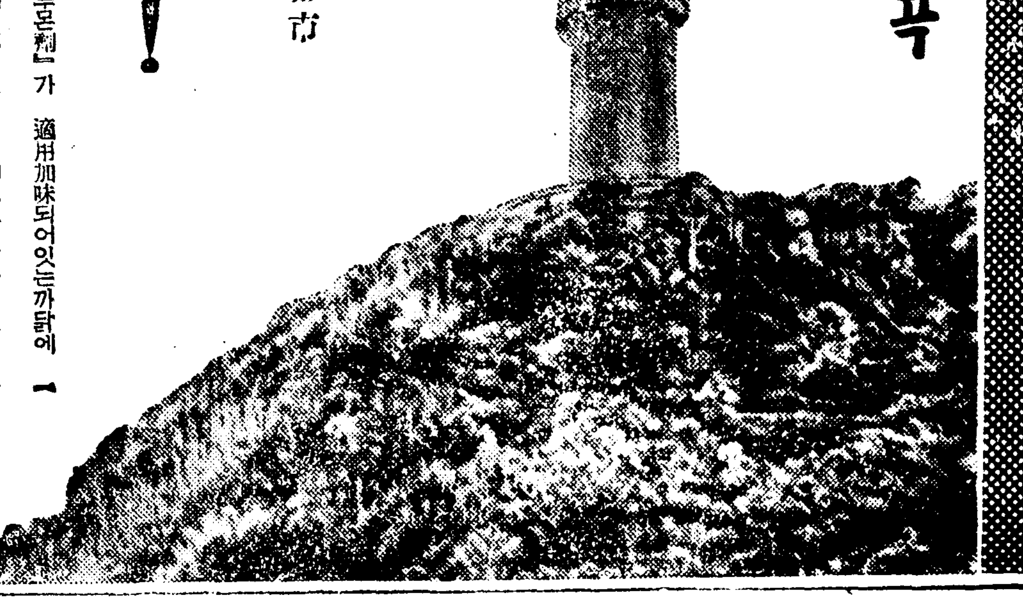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輸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腦神經衰弱과産前産後에有効합

—藥價—
六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三十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三 命之母本舖·笹岡藥房 振替東京五○五○番 電話京橋二八八七番



전국방방곡곡 담 기침 천식 환자

世界各國의樞要都市 서頒藥되고잇는

龍角散!

靈藥龍角散은 최근에 유명한『호흡기제』가 適用加味되어잇는까닭에 一時的으로 기침과 천식을 진정식히는藥과는 根本的으로 달름으로 병을 치료하면서 한편으로 全身에元氣를 북돗아주며고질의 難病도 合理的으로 낫게됩니다 그러므로 龍角散으로 치료하시면 肺炎、肋膜炎、肺結核等으로 變하는變症을 미전에 예방하여줍니다。

登錄商標

龍角散

(룡각산)

主効

痰咳患者〈 담으로콜록콜록기침이나서 곤난을밧는 만성 급성의분
喘息患者〈 그르렁거리고 숨이갑부며 낫지안어서비관하시는분
咳頻患者〈 기침이나서 밤잠을 못주무시며 談話에도곤난을느기는분
感氣咳에〈 류행성감기 기침과 두선염 등으로생기는 기침
肺病咳에〈 肺病 肺癆 肺炎 등으로인한 기는밧튼기침에特効합
血痰患者〈 기침이날때 담에피가석겨나오는분은 연용하시면특효합
百日咳〈 어린애들의기침특히백일해의예병을남기지안케곳처줌
홍역기침〈 홍역은 어린애들께 퍽 위험하니 이병의 기침에 특효합

●香味가 爽快하며 먹기조코 절대도 副作用이 업스며
●胃腸을 해롭게하는법이 업습니다

二日半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東京市神田區豐島町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浪花(67)○九二○ ○八○○

▽全道藥房에잇습니다△

F12—12

라디오

廿六日(金曜)

◇午後六時 偉人이야기 三月에 난科學者명문 韓仁錫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유고의生活과衛生 李軒求
◇同七時三〇分 民謠 金琫珠
◇同八時 (東) 管絃樂 세개의 夜想曲…드뷔시作曲 一、구름 二、노리 三、人形(女聲合唱) 合唱 카꾸세이合唱隊 日本放送管絃樂團 指揮 요제프·르젠슈톡크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賢妻" 一場 【配役】 藏衣…吳淳泳 妻…金賢植 매담…金慶子 客…朴濟鎬
◇同九時 演劇 江水打鈴 外 一、漢江水打鈴 二、노들江邊 三、도라지打鈴 四、흥打鈴 五、사발가 六、닐니리야 七、오돌독
細笛 崔鎭成 短簫 姜鎭琛 李玉紅

二十七日(土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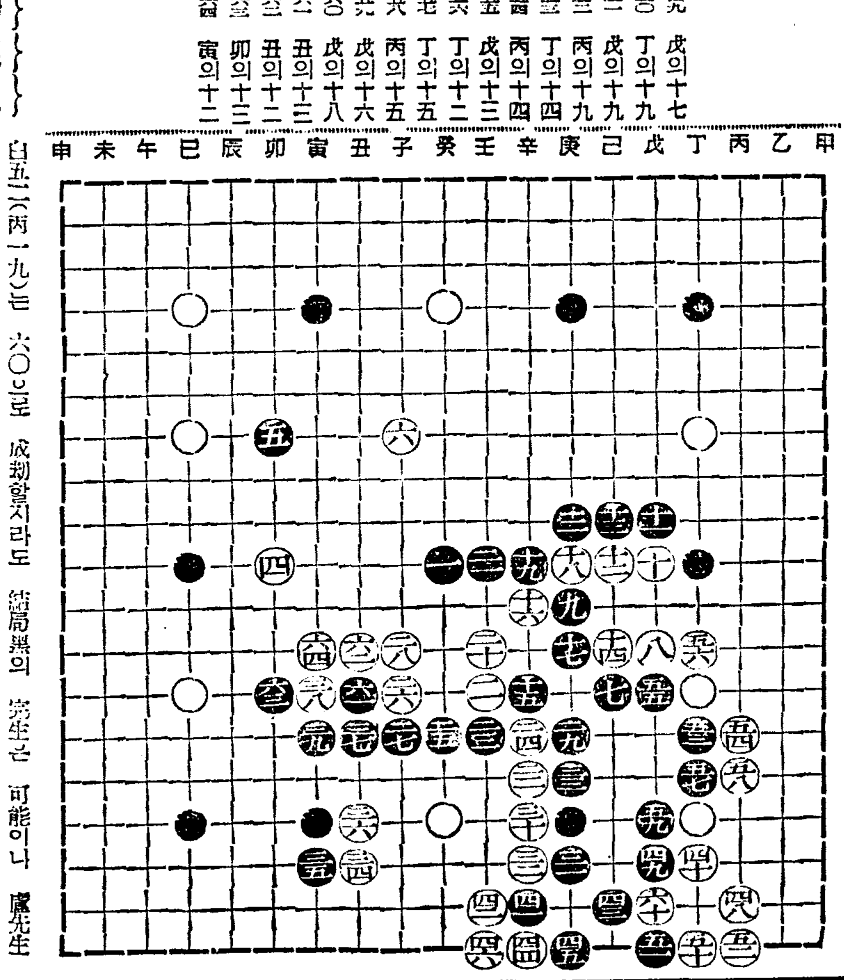
◇午前九時 崇仁商業學校入學合格者發表 (平壤)
◇午後〇時五分 (東) 輕音樂
◇同一時一〇分 京城帝大豫科入學合格者發表 (第一放送)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案內
裝飾에對하야 安順杜
正義女高校合格者發表(平壤)… 뉴스에 계속
◇同六時 獨唱 一、참새새끼… 二、쓸쓸한바다 보헤미아俚謠
◇同六時三〇分 童謠時間 成尙勳 …(중략) 피아노伴奏 崔致鎭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七時三〇分 어린이와家庭의 저녁 童謠合唱 一、봄노래(李) 二、진달내꽃봉오리(李) 三、봄바람(金) 四、시내물(金) 五、종달새(李) 六、어리광(金) 七、뒤ㅅ집언니(李) 八、아기염소목소리(金)
伴奏 DK管絃樂團 金貴瑛
◇七時五〇分 兒童劇 「그림책」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導 南基薰
◇同八時一五分 獨唱 一、鐘…小川一郞作曲 二、春雨…小川一郞作曲 三、봄마지…슈베르트作曲 四、我心…小川一郞作曲 五、春歌…山田耕作作曲 六、봄…鈴木靜作曲 七、睡眠의精…브람스作曲 八、거룩한밤…류베르作曲 鈴木美佐保
◇同八時三五分 野談 그어머니의입 申鼎言
◇同九時 農村講座(三) 第二高普 金雄珏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 輕音樂
◇同六時 (東) 唱歌工夫
◇同六時二五分 (城)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 (大) 歌謠風景
◇同七時五七分 (京) 浪花節
◇同八時三〇分 (東) 世界音樂地理

二十八日(日曜)

◇同九時 (東) 時事解說
◇午前九時 平壤醫專校入學合格者發表(平壤)
◇同十時 禮拜實況 … 同治町…
◇午後零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白髮歌 二、唱劇調…가、祝祈타령 나、十杖歌 鼓手 池龍九 申錦香
◇同二時 럭비試合實況 (京城對京城協會)
◇同三時三〇分 럭비試合實況 (延專對普專) 龍山球場으로부터(京城)
◇同六時 童話
◇同六時二五分 네가지對答 尹石重
◇同七時三〇分 伽倻琴倂唱 一、어화청춘 二、唱劇調 가、獄中歌 나、제비路程記 崔南善 修養講話
◇同八時 (東) 피아노獨奏 鼓手 池東根 崔桂蘭
◇同八時三〇分 古談 紋繡出…作品十二 쇼팡作曲 야노느도그로이차 李雲林
◇同九時 제비가 外 一、제비가 二、金剛山打鈴 三、博物打鈴 四、寧邊歌 五、바위打鈴 六、將棋打鈴 崔貞禮 李忠善 吳琴
◇同一〇時 朝鮮雅樂 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合樂…壽延長之曲 二、大笒獨奏…柳初新之曲 三、歡樂…乾坤歌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李王職雅樂部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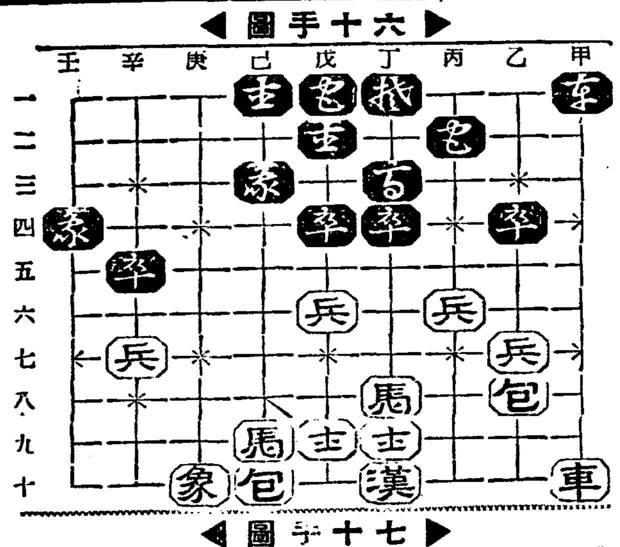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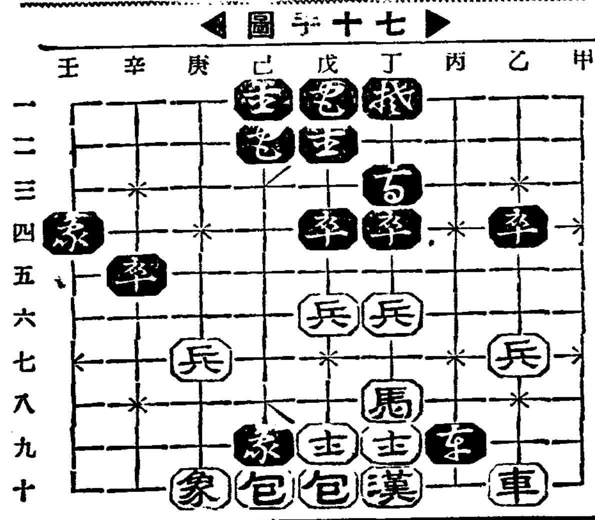
白 盧史楚
黑 蔡極文
四目半減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七)

漢先手 李在鳳
楚 全于石



◀六十手圖▶



◀七十手圖▶

甲十車—乙十
丙三[illegible]—己三
辛七兵—庚七
甲一[illegible]—甲九
丙六兵—丁六
甲九[illegible]—丙九
乙八包—戊八
己三[illegible]—辛六
戊六包—戊十
辛六[illegible]—己九打馬

傍觀記

白五二(丙一九)는 六〇으로 成劫할지라도 結局黑의 完生은 可能이나 盧先生의 好劫으로는 讓步의感이 不無하다 黑五九(戊一六)에至하야 完生되얏스니 蔡先生의 高明先察을 感歎할뿐이다

待望의朝光四月號出現

惜別의 一夜도 意義잇게
崔承喜送別座談會
女流藝術家까지 一堂에모혀
絢爛! 話題의豪華版

세계적 무희 최승희가 구라파를 가려든중 돌연히 미국에서 十五만딸라를 내이고 초빙하게되자 부득이 그코—쓰를 변경하지안흘수업게되엿다。이리하여 이것을 기회로 고토조선에 도라와 고별무용회를열어 일반팬의 열열한 절찬을 밧엇거니와 이제 본보출판부에서는 조광(朝光)사월호에 실으려고 조선에 첫번 오는길로 최승희를 둘러싸고 좌담회를 열엇다。이제 거기출석한분은 최승희자신은물론 최승희의오빠 승일씨 여류시인 모윤숙(毛允淑)씨 여류소설가 리선희(李善熙)씨 여류화가 정찬영(鄭燦英)씨 그리고 본사측으로 세사람, 이리하여 몃시간동안을 아—조 시내ㅅ물이 흐르듯 끈히 이야기의 꼿을피웟다。그내용은 조광사월호에 게재되여 벌서부터 너도나도 읽음으로 조광사월호는 굉장한 인기를 끌고잇다。이제 그좌담회에서 물은것을 몃조목소개하여 조광사월호를 읽기위한 예비지식을 드리고저한다。

問, 米國은 언제가십니까?
一、外國을 가시면 어떤 舞踊을 소개하시렵니까?
一、이번에 十五萬弗 계약하고 가시는것이 사실입니까?
一、身長은 얼맙니까?
一、어떤춤을 저게가서는 紹介하렵니까?
一、남편과 딸도 가치갑니까?
一、따님은 누구를 달멋습니까?
一、누가舞踊을 못하게한다면?
一、宮中樂을 舞踊化할 생각은?
一、歐洲가면 만나보고십흔사람?
一、나고야(名古屋)에서 무대에 뛰여든 靑年은 어떤사람입니까?
一、팬에게서 편지가 옵니까?
一、歐洲에가게된動機?
一、히틀러가 結婚을하자면?
一、前英皇帝의 戀愛觀은?
一、어린애를 더나코 십지는 안씁니까?
一、무슨음식을 조아합니까?
一、이제 戀愛할생각은 업습니까?

이외에도 가지가지 자미잇는 질문에 최승희는 솔직히 대답을하여 우숨과 이야기의 꼿밧을 일우엇습니다。

스니 이야말로금상첨화이외다。조광(朝光)사월호는 누구나 아니보고는 입생의 큰손실을가진 호화판중에 호화판입니다。그리고 폐병환자는물론이오 폐병에 걸리기 쉬운선병질을 가진사람도 반드시읽어야할 특집입니다 절판전반드시하로라도 속히보시오。

조광(朝光)이 조선잡지계에 던진 파문은 그퍼지는지 역이 동남서북으로 광장한 것이지만 매월매월 그상승하는 부수(部數)의 기세는 오르기만합니다。이것은 오즉 조광이 어느잡지보다도 양심적이오 또일반독자층을 끌고로 읽도록만드는때문이지만 조광은 또 여러분애 독자의 참된 지원이 잇는 때문이 그중요한 리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층더 분발하에 여러분의 조광이되려고 노력하고 잇습니다。특히 조광사월호(朝光四月號)는 그내용에 잇서서나 더그편즙에 잇서서나 더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드러것습니다 더구나 이번호는 민중보건(民衆保健)을 도하는 장거(壯擧)로서 결핵(結核)예방과 치료법에관한 특즙을 하엿습니다 모—두의학박사의 대론문이니만큼 권위잇는것은 말할것도 업는것이지만 또 이분들을 돌려싼 결핵예방과치료에 관한좌담회를열어 일반적으로 읽고 이용참고하도록 하엿습니다 그리고 세계적무희 (世界的舞姬)최승희(崔承喜)를 어 인기중천한그의가지가지를 독자에게 써—비쓰한것이 그특색입니다 그러고조선문화의은인 게일(奇一)박사의추도특집、세계적제금가 예만회견기、또 유학기자(篇訪記者)의 탐방기등도 또한 조광사월호에 빗나는 내용입니다 그외에도 창작특집 시사논문 아름다운화보 표지는 조광이아니고서는 차저볼수업는 풍부한 내용입니다 이제 조광은 이리하야 해내해외에서 주문이 답지하는현상으로 이조광을 읽지안코는 도저히 현대조선의 상식을 말할수업스리만큼 문제꺼리의대잡지가 되엿습니다 도회인이나 농촌에 게신분이나 산촌에 게신분이나 이조광(朝光)사월호(四月號)를 읽고 다시금 그해박한상식을 어드시기바랍니다
(注文하는方法 돈四十錢을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朝鮮日報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六番으로보내시면서 朝光四月號를보내라고 하시면됩니다)

醫博二十六氏總執筆
結核豫防治療讀本
・福音의書朝光四月號!!

폐병은 인류의 대적입니다。어느나라 어느사회를 물론하고 이병으로 만흔사람이죽고 또는 그사람중에도 꼿가튼 청춘들이 죽는다고하니 이아니무서운병입니까? 그런데 조선내에서만하야도 일년에 四、五만명이 이병으로 죽는다고합니다。이얼마나 무서운 비극입니까? 더구나 이폐병은 한번걸리기만하면 치료하기도 어렵거니와 죽기가 십상팔구라는것입니다。이폐병에 걸린다는것은 사형선고를 밧는다는것과 마찬가지외다。그리고 이병이 꼿피고 땃뜻한봄철에더 발생하기가 쉽다고하니 실로무서운병이라 누가아니하겟습니까 그러나 이병은 발병시초에 가장 합리적으로치료한다면 백명이면 백명이 모다완쾌되고 또는 이기、삼기의 병이라도 가장진보된 오늘날 합리적치료법에 의하면 누구나 대개 완쾌될수잇다고합니다 그러나 이병에걸려가지고 치료방법을 거룻치면 백명이면 백명이모다죽는다는것입니다。

일년에 사오만명식 죽어지는 꼿가튼 청년들의 목숨을건지고 저 폐병이 가장만히 생기는四월을마지하여 조광잡지사월호에는 조선에가장권위되는 이십룩명의 의학박사가 의학의 온갖치료비법을 모다공개하여 누구나 이책을보고 료양에 유의만하면 폐병을 완치하도록 써노흔 백여페지에 기사가잇습니다 이야말로 폐병환자의 한번도보지못한 전래의 조혼기회외다。폐병소질을 가진사람도…그뿐만아니라 폐병의소질을 가지고 또는 폐병에 걸리기쉬운환경과 체질을 가진사람들은 어떠케하면 일평생 이병에걸리지안코가장 행복스럽게 지낼가하는 훌륭한 비법도 남김업시 공개하엿스니 이야말로 조선대중이누구나 보아야할 건강독본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일코 행복을구하겟습니까? 그리고 폐병환자로써 알기어려운모든의문은 본사기자와 이십여명의 의학박사와 합석하여 일대좌담회를열고 모든것을 시시콜콜이 이야기하엿습니다。

朝鮮文化의恩人
奇一博士追悼特輯

기일박사는 조선을 위하여살고 조선을 위하여 일한 조선의은인(恩人)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십년전에 조선이 아직깜깜하고 잠잘때에 그는 구든절심을가지고 조선에 왓습니다。그리하여 일편으로 선교사업에 노력하는 동시에 학교를 세워 가지고 조선사람들에게 새로운 학문과새로운 지식을 가라처습니다。그뿐만아니라 박사는 조선학문과 조선력사와 조선문헌을 만히배워 우엄직한 조선사람은 감히 짤볼수업슬만치 훌늉한 조선학자가 되엿습니다。그리하여 조선의온갖문화를 세계에 소개하엿습니다 그리하여 박사는 구미에 소개하고 또는 구영미각국에 소개하고 또는 구운몽 춘향전 심청전등을 번역하여 영문으로 세계에소개하고 그외에만흔책을 번역하여조선의 문화를 세계에소개한 은인입니다 조광(朝光)사월호에는 박사가조선와서 온갓고생한 이야기와、또는 그가 활동한 모든사실과 그의인물과、일화와편지등을사삿이쓰고 또는 그의가정과、박사에대한사회 여러명사의 인상을 모조리 실엇는데에 보기드믄대특집이니 누구나 박사를 알려는사람 또는 조선문화의 일면을알려는사람은 반드시 보아야할특종기사입니다 이런기사는보아서 유의하고 또는주는바갈켜과실의이 적지안습니다 이번조광사월호는 이러케 조흔기사만추리고 추려서 정금미옥가치꾸며노앗습니다。

囑托記者의名探訪
各界名士心境打診
奇問賢答으로一貫한縱橫談
繡노흔流麗한筆致!

기자안인 문인이 기자가되여 명사를 방문한 기사!이 얼마나 자미스러운 시험입니까 이제조광사월호에는 이새로운시험을 박태원(朴泰遠)안회남(安懷南) 리선희(李善熙)씨에게 축탁하여 해보기로 하엿습니다。평상을 오즉 교육사업으로헌신한 중동학교교장 최규동씨 종교세계에서 일생을보내시고잇는 감리교총리사 양주삼씨 그리고 한의 남대원씨…이글은 기자의직업적인 기사보다 훨신 그못이달라 누구나한번읽어 그예리한질문과그훌륭한답변에 놀랄것입니다 조광사월호는 이가티 훌륭한기사만을 실엇스므로 벌서 인기는굉장합니다

朝光四月號目次

○畵報 舞踊家와音樂家 朴外仙孃의迎春舞。金敏子孃의봄의호름。尹明淑孃의포즈。吳貞淑孃의포즈 四月의映畵 女子만잇는都市。봄의誘惑。樂聖베토벤 노래하라즐겁게。春水
(表紙)…………安夕影
○迎春譜(隨筆) 故宮尋春(李軒求) 北國의봄(韓雪野) 南窓迎陽(李孝石) 春來不似春(林和) 失龍의陽春(李源朝) 春閒(白鐵變)
○結城財政의方向 徐椿
○三中全會와中國의將來 李元坤
○商業과道德 韓昇寅
○記者안인 記者의探訪記 中東學校長 崔奎東氏 監理敎總理師梁柱三氏 漢方醫 南台元氏 朴泰遠 李善熙 安懷南
○崔承喜送別座談會 (出席人 崔承喜、崔承一、毛允淑、李善熙、鄭燦英、咸大勳、盧子泳、崔貞熙等)
○奇一博士追悼特輯 博士의生活과業蹟。博士의印象片片。博士의著作。博士의書簡 博士의人物과逸話。博士의家庭 博士의追悼辭。
○鼓手五十年 韓成俊
○設問(生活設問、演藝設問。旅行設問。유모어設問。愛情設問) 執筆人 李孝石 李箕永 鄭芝鎔 李善熙 宋影 安夕影 李石薰 李塏根 金午星 金東鳴 李克魯 朴泰遠 金尙鎔 金煥泰 金裕貞 金璟根 李秉岐 李軒求 孫晋泰 洪蘭坡 柳致眞 車相瓚 姜鶴兆
○結核豫防讀本 (醫學博士二十七人總執筆) 結核豫防特輯意義 編輯局 結核撲防讀本刊行의意圖 李甲洙 結核의病理 尹日善 肺結核의原因及病理 朴錫榮

—崔承喜創作의무당춤—

陽春을裝飾하는
朝光의創作陣

이번 조광사월호에는 창작이 만흔편이나 실렷습니다 인기를 끌고잇는 주요섭씨의 장편 「未完成」 박태원씨의 장편 「川邊風景」을 위시하야 단편으로는상섭씨 조요의 「蒼白한안개」와 최경희씨의 「凶家」그리고 유—모어소설 로 현퐁씨의 「治安」등입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일반독자의 희망으로 特히 한편식 실키로 햇는데 특별히 극연희곡상 百圓을바든 김진수(金鎭壽)씨의 「길」(全四幕)과 리광내(李光來)씨의 석유나무집두편을 실엇습니다 이것은조광이 안이고서는 할수업는 봉사적편집인것을자긍하는바입니다

○肺結核의症候 金東益
○肺結核의豫後 李義植
○肺結核의豫防 沈浩燮
○肺結核의內科的治療 吳漢泳
○肺結核의外科的治療 李容卨
○肺結核과精神分理病 明柱完
○肺結核의統計的觀察 崔羲楹
○醫師로서의肺病體驗談 許信
○小兒의結核病 李先根
○結核豫防座談會 諸氏
○腸結核(高永珣) 腹膜結核(張基勉)
○結核性腦膜炎(任明宰) 脊椎結核(…)
○結核의症候 李容卨 骨及關節結核의治療法 (金河植) 腎臟結核(申聖雨) 泌尿生殖器結核(李柴俊) 子宮及外生殖器結核(尹敬浩) 姙娠과結核 (尹泰權) 肛門結核 (金晟鎭) 淋巴腺結核 (朴昌熙) 喉頭結核(李日永) 皮膚結核(吳…)
元衡)
○提琴家엘만會見記 咸大勳
○各界消息 奇人奇話集。
○陽春明暗二重奏 百貨店風景。病院風景。散步者風景。火葬場風景。文化住宅街風景。貧民街風景。
○긴戱曲(金鎭壽(劇硏百圓懸賞當選作) 柘榴나무집(戱曲)李光來 懸賞脚本發表(朝光部)
○治安(유모어小說)玄卿
○名詩人의艶談逸話 青吾 片言瑣語。百爾言。
○四月의創作陣
長篇小說 未完成 朱耀燮
長篇小說 川邊風景 朴泰遠
短篇小說 蒼白한안개 張德祚
短篇小說 凶家 崔貞熙

美麗를極한印刷
映畵藝術家畵報

이번조광사월호에는 영화화보가 더아름답게 꾸여젓습니다 「女子만잇는都市」「봄의誘惑」「樂聖베—토벤」「노래하라즐겁게」등 아름다운 영화화면과 아울려자미잇는 해설을너허 영화를보지안코도 그영화가 어떤것인지를 알수잇게만든 아름다운화보입니다 그리고 또 박외선(朴外仙)김민자(金敏子)양의 무용포—즈며 윤명숙 오정숙양의 음악연주포—즈가 아름나운 아—트화보에실려 독자의눈을 현혹식힐것입니다。

그리고 표지는 매월 참신하게꾸미는 안석영(安夕影)씨의 미려한것입니다。꼭조광사월호를 사읽어야 아름나운화보를 다시한번보십시오

꿋철에우는
百禽語

꿋철에우는 새소리에는 모—두말이잇다 이제각가지 새가우는소리가 무엇인지를 말한미자잇는글이다。이에 그일절난을 소개하여도 만다

이글이 얼마나 자미잇는것인지를 알수가잇다。

꾀꼬리도 농촌꾀꼬리는 울음을 울어도 꼭농촌에 격이맛게 운다 농촌처녀들이 일늘잘하지안코 모양만내라고 동배기름을 발려가며 머리빗는것을 보면「낼내—고기고기로—머리곱게빗고 시집가고지고……」하며 조롱하고 농부들이 점심을 먹고낫잠을자다가 그냥저녁때까지 내처자게되면 그것을 깨워주노라고「담배먹고 꼴비오—건너산에 해젓소」하고울며 또바람이 불면나무가지에잇는 자기에집이떠러질가바 념려를하야「에—우단 하다!여개바람아 팽팽부지말아 나무입이떠러진다…」하고 소리친다

뭇레새는 늙은마누라의무명것는흉내를내너라고「빼거빼거」소리만하고 황랑새는 성난며누리의 무명다듬이는것을 본밧어서「또루루락!탁락!또루루락락…」소리만한다 가마귀는 알을까먹자고「까먹까먹」하고까지는 갓갓논님이온다고「갓갓」하고운다 이것만보아도 얼마나 자미잇는것을 알수잇는데 그외에자미스러운것이더만타

鼓手五十年韓成俊氏
貧困과賤待中에서
鼓手로一生을바친丹誠

무덤속의 古色이 蒼然한 낡은 壁繪나 깨여진 돌조각을 뒤지여 옛적文化와 藝術에 머리를 숙으리는것이우리이면서 아직도 毒藥가흔 李朝形式文明의 피를 벗지못하야 護視할지 그것을享受할 餘裕가 업슴인지 僅僅히 보존하여온 命脈이나마 아직도 살어잇는 民俗藝術의 가지가지에는 눈도 떠보지못하는 現狀이라고 할수잇다고 생각한다。『소리』더구나『판소리』(或은數千年傳統을 가지고온『춤』이 낫벗든것이아니고 價値가 업슴으아니지만 環境이 그러코 따라서 그돌틈에서자라나는 사람조차 엇지할수업는 制度아래 찌그러지고 꾀부라저 자라낫스니 그러타고 이제와서 그衰頹함을 몃시하고 歎하고만 말것인가 蕩男蕩女의 입과 妓生아씨의 발성단에서 숨여가는 幾影을 우리는 그대로 버려두고마는 二十世紀兩班으로 滿足하고 말것일가? 여기에 생각하는바 잇서서 우리는 참된 再認識을爲하야 爲先 그들의 一生을 들어 그곳에 비최인 時代相과 苦難을 通하야 닥거온 修鍊의 眞相을 엿보려고하엿다。이번에 揭載하는 鼓手 韓成俊氏는 今年六十餘歲 貧寒과 賤待가운데서 『춤』과 장단을 가지고 一生을 바치엿다。우리는 먼저 다른것은 여하간 『藝』그것만이라도 볼때에 말업시 그것을 尊敬하야 될줄안다。모든『가락』은 『장단』에잇고 『장단』의 근원은 『춤』이라고하는 氏의말과가티 朝鮮에서는 『춤』이 그러케 貴한것이고 獨特한世界를 가젓건만 참말 今日은 이『춤』이야말로 거이그 存在까지 모르게되여잇다。氏는 기괴 각한바잇서 조금도 거짓업시 幻만흔 一生을 赤裸하게 告白하엿으니 讀者여 여기에도 지난날의 生活相、貧困、修鍊、戀愛、革命—이展開되여 우리에게 다시금 過去의 時代的性格을 回顧케하야 엇든것이 잇을것이며 쓰러저가는 우리곳의『춤』이 어떤것이엿든가를 기피생각케할줄안다。

咸南高地營農의癌 冠銹病根源判明?

長津赴戰兩湖水關係에基因

無名篤農苦心에凱歌

【咸興】함남산지대 농작의 암(癌)이라고하는 연맥(燕麥) 관수병(冠銹病)의 대책에 대하야서는 수삼년래로 도농무과에서 연구에연구를 거듭하고 잇섯든바 결국 그병원체(病源體)를 캐일수업서 할수업시 연맥(燕麥)감반(減反)하고 대소맥(大小麥)으로 대작(代作)케하고잇는데 이상하게도 장진군(長津郡)에잇는 독농가(篤農家)로부터 그근본원인(原因)을 구명(究明)하게되야 일반의 주목을 모으고잇다 그는 장진군에잇는 사수중동학교(泗水中東學校)의 교원으로 다년간 장진일대의 농작을 연구하고잇든 리덕모(李德模)라는 사람으로 그가이병원을 구명하게된것은 다음과갓다

즉 연맥의 관수병은 소위부전(赴戰)장진(長津)의 두큰수전회사(水電會社)의 호수(湖水)가되이후부터 매년 빠짐이어시피해를 밧게되는것에 착안(着眼)하게되야 열심이 연구에 몰두하게되 드듸여 전기 두호수가잇는관계로 기류관계(氣流關係)의 변동이생겨 고지대(高地帶)각지에 습기가 만케되얏다고한다 그리고 또하나는 호수(湖水)가 비결(氷結)하기때문에봄에는 그호수가 전부녹아야 기후가 처음풀리게됨으로 자연히봄이 전보담도 매우 늣게된다고 한다 이습기(濕氣)가 만코봄이 늣게되엿다는것은 연맥(燕麥)에게 가장큰적(敵)으로서 늣게 씨를뿌리는 관계로 개화기(開花期)는 자연히 칠월이나되며 칠월에는 또다시 제일습기가만흠으로 거이전멸(全滅)하게된다

그럼으로 습기가 비교적적은 놉흔지대가 연맥의 피해가적은것도 결국여기에 원인되는것이라고한다

이럼으로 이러한 기후관계의근본적대책을 세우지안흐면 그피해는 면할수업슬것이며 함남도연맥피해대책도 이근본원인의구명으로 일대혁명을 이르킬것으로 가장주목된다

瑞興郡下에火災 草家二戶全燒

【瑞興】지난이십오일오후두시반에 서흥면화곡리(花谷里)칠십륙번지 안영재(安永載)의초가집에서 불이나서 풍세가 세여 곳 그집을태우고 그겻집인 최기석(崔基錫)의초가집까지 전소시켯는바 화재의원인은 아직 미상하며 손해는 약금백원가량이라한다

鑛毒沃土를蝕食

甕津鑛山區內被害畓五萬坪

【甕津】황해도옹진군마산면도원리(馬山面桃源里)에 사무소를둔 일본광업주식회사 옹진광산제련소(甕津鑛山製鍊所)는 작년에신축되여가지고 사무소를 비롯하야 사택전부를 수대리금곡동(秀谷里金谷洞)으로부터 이전한후이래주야겸행으로 제련사업을 계속중인데 이제련소아래로 나려오면서는 옹진수리조합의 몽리구역에 들어잇는 논의총면적이약 오만여평이나 접속되여잇서서이에관개하는물은 변종자를 파종할때나 이앙할때를 물론하고상류에 큰웅덩이를파서두고 그물을가지고 누구나전부 논농사를지어왓섯는데 작년에 옹진광산에서 제련소를 지으면서 그와동시에 상류에다가 자기네의 소유기지란구실로 큰웅덩이를 파고 발동기포푸를 비치하고 제련공장에 물을대여 올리는까닭으로 말미암아 재래논물을 저수해두고 논에 대여가며 논농사를 지어오든 웅덩이에는 수원이전부끈허젓슴으로 작년에도 지주와 소작인측에서는 폐농지경에 이른사람도 잇섯스며 또한 이앙이 되지못한채로 그대로 묵고만 면적도 적지안헛기 때문에 지주측에서는 옹진광산 당국자와 담판을 한사실도 잇섯스나 신통한해결을엇지못한채로 해를넘기고 마럿다한다 그리고 제련소에서는 광석에서 금의성분을 잡기위하야류산동(硫酸銅) 류산아연(硫酸亞鉛) 청화조달(靑化曹達)등의 칠종의 독극약을 사용하고잇슴으로 그독약이용해된물이흘러나려오다가 고여잇게 맨드러둔저수지는 잇다할지라도 그돌가루가 흡사히 눈두묵과가티 될것이 저수지가장자리로 말려가지고 그가루가 바람에눈과가티불려서 근방에산재한 전답곡식물에 부착하게되면 원래독약의성분이 함유한까닭에 말려죽는일도만흠으로 금춘 농작기를당하야 광산회사당국에 담판하려는 의안을세워가지고 수십인 지주측에서는 선후책을 강구중이라고한다

生活難悲觀 自殺二件

【牙山】충남아산군배방면 수철리(排芳面水鐵里)에거주하는 박화경(朴化京)(三二)은 지난이십일밤에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엿다는데 자살의원인은 그는간구한 살림에 식구는십여명이나됨으로 근농을하여 약간버러야 다솔식구에 호구하기가 극난할뿐아니라 압흐로 갈수록 생활이곤난할것을 각오하고 그와가티 자살한것이며─

또하나는 지난이십사일밤에 온천(溫泉)저수지에서 남자한명이 유서한장을 남기고 빠저죽엇는데 아직신원은 판명되지아니하엿스나 유서의내용을보아 그역생활곤난으로빠저죽은듯하다한다

關門新義州에도 放送局計畫

現聽取者二千三百名

【新義州】계획중인 신의주방송국(新義州放送局)은 대안 안동(安東)측의 방송국 신설에따라 조선 만주사이 교환을 주체로 두고 신설하기로되여 근일방송협회로부터 송정(松井)리사이하 수명의 협회원이 신의주에오기로되엿는데 현재도내에잇는 청취자(聽取者)는 이천삼백륙십명으로 방송국을설치하려면 약오천칠백명의 청취자를 가지지안흐면 설치하기가곤난함으로 금후 적극적 대중모집을 할모양인데 평북도에서도 평북의발전을위하야 적극적후원을 하기로되엿다한다

新羅梵鍾發掘

【淸州】충주군엄정면신만리(忠州郡嚴政面新萬里) 리경연(李廷緖)씨는 그동리뒷산을개간중하든 지난이십일일금과동으로만든 범종(梵鐘)세개를 발굴하엿다는데 그표면은 불상과 꼿출 조각하엿스며 상부에는 룡이옥을 물고잇는형용을 조각하엿는데 고고학상의 호자료로 보임으로 이것을 당지경찰서를 거처서 총독부로 보내엿다고한다

百八十萬圓드려 大砂防工事實施

十五年間에萬三千五百町步 慶南道에서計畫樹立

【釜山】경상남도에서는 치산치수(治山治水)의 항구책을 수립하고자 도내황폐림야(荒廢林野)의 일만삼천오백삼십삼정보를 소화십이년도부터 동이십륙년도까지 십오개년계획으로 총공비 일백팔십구만사천원을 던저서 일대민영사방공사(民營砂防工事)를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방금그준비에 분망중인데 그공비중 칠할은국고보조 이할도비부담 일할은각관계읍면주민 부담으로 한다하며 그시공면적의 년차별은다음과갓다고한다

十二年度부터 十九年度까지 每年七百町步

廿年度부터 廿一年度까지 一千五十町步

廿二年度 一千九十二町步

廿三年度부터廿五年度까지 每年 一千二百町步

廿六年度 一千百四十町步

教育南浦의懸案 實踐商業獨立

簡易校二校增設

【鎭南浦】진남포부 제이부교육회를 지난이십오일오후한시부터 부청루상서개최하고소화십이년도 진남포제이부특별경제(第二部特別經濟)예산안을 토의한바 예산총액 십만칠백륙십원으로 증래가덕보통학교에 부설되여잇든실천상업학교(實踐商業學校)를 이만으천원으로 독립경영키로 되엿다하며 간이학교 이개소를설립하고 가덕풍정(加德楓井)두학교에 세학급을 증설키로되엿다는바 간이학교설치는 보통학교입학난이 극도에달한이때 부시로서는 필요업는설치라고 반대하는의원이 잇섯스나 결국원안대로 가결한후 동네시에폐회하엿다고한다

運動場整理에 八百學父兄總動

【光陽】광양공립보통학교는 이전중숙이래 운동장의정리가 중분치못하야 매우고심중에잇던바 동교학부형회에서는 긴급히 역원회를 개최하고 매호당삼인식출역케하야 정리의만전을 기대하던중 지난이십일일부터 팔백여명의 학부형들이 총동원하야 촌분의시간을 액기여가면서 심혈을다하야 이제정리의완성을보게되엿슴으로 일반은 학부형들의 뜻기픈열성에 칭찬하기를마지안는다고한다

六人組少年竊盜 清州署에打盡

【淸州】청주서에서는 백경식(白敬植)(一五) 박복순(朴福順)(一四)등외네명을 검거하야 취조중인데 탐문한바에의하면 청주령남교(淸南橋)하에 근거를 삼고 여섯명이일단이되여 지난십일 본정일정목 소목증(小木曾)집옥 류진점(眞店)메소에 백주침입하야 시계양복등 으륙건시가륙십원가를 절취한것이 청주서원에 탐지한바되여 그와가티 검거되여 취조를 밧고잇는데 이여섯명은십오세를 넘은것으로 모다십삼사세의 소년이라고한다

때안인大風雪로 高地帶交通杜絶

方今關係當局除雪에努力中

春來不似春의北國

【咸興】벌서 꼿소식을전하고잇는이때 함남지방은 아직까지도 길흔겨울의장막속에 숨겨서 때때로 엄한(嚴寒)이닥처오고잇든대 이십사일아침부터는 또다시 때안인 백설(白雪)이휘날려 오후일곱시까지 세치나싸혓다 유벽지는 더욱 대설(大雪)이 내려각지모다 적설(積雪)두자가량 되엿다고하는데 그우에 풍속 이십미돌이나되는 큰폭풍이 불어서 풍산(豐山) 마상령(馬上嶺) 판평령(闊平嶺)은 모다 석자 내지 넉자의 눈이 싸혓다。

그리하야 그지방일대의 교통은 완전히 끈허저서 교통선상에 대이상(異狀)을 뵈이고잇다 방금 토목관구 경찰서에서 주민들을 독려하야 제설에 노력중이나 당분간 복구(復舊)의희망이 업스며 이번의 풍설은실로 삼십년래의 레코ー드라고한다 고원(高原)군지방도 역시큰 풍설로서 이십사일부터는 교통이 완전히 끈허젓다。

함흥지방도 이십사일오후부터 기온이 급작히 내려서 이십오일오전중에는 령하사도삼분까지 되여 다시금 겨울이 돌아온듯한 늣김을 주엇다

舍人에도大雪

【舍人】우수와경칩춘분까지지나고 압뒷동산의 진달래꼿봉오리가 점점 터오르는요사이 철느진 륙화가 홍뻐이도 피엿다…평남순천 사이지방은 지난이십삼일오후칠시경부터 흰눈이펄펄나리여 때아닌 은세계를일우엇는바 이십사일 오후까지에이르러 칠촌가량의 적설을보엿다 이는실로지난겨울에도 보지못햇든 희유의대설인데 녹지만 안헛든면 일척이상의달할뻔햇다 이때아닌 대설로 말미여부근각지의 자동차통행까지당분간은 두절될 모양이라고한다

白魔、平北地方서狂跳

嚴冬을凌駕하는 各地의積雪量!

【新義州】이십사일밤부터 국경(國境)지방에는 때아닌눈이나리여하로밤에 은세계를 만들어놀리기시작한 압록강(鴨綠江)의어름을 갓어놀게하야 "국경의봄은아직 멀다"는 느낌을갓게햇는데 이십오일 평북경찰부에 들어온적설(積雪)상황에 의하면

▲慈城郡白作嶺 一尺六寸

▲中江、滿浦 各 一尺

▲江界 六寸

▲渭原、昌城 各 五寸

▲新義州 二寸

으로상류(上流)방면은전면적으로 교통이두절되여 대혼란을 연출하고잇다한다

咸北一帶에도 春雪이滿乾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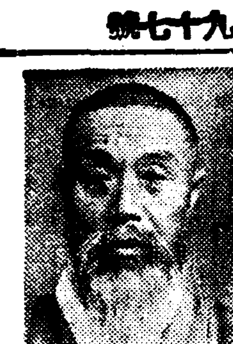
【鏡南】이십사일부터 일기가갑작히 치워저 봄을반겨하든 북국에는 다시겨울을 마지한것가튼기분에 싸이드니 이십사일새벽부터 나리기시작한 백설은 이날오후까지 계속하야 나리고잇다 이번눈은 전도내에 다가리나리는모양으로 벌서 싸인눈이 다섯치를헤이고잇서 자고난뒤에는 얼마나싸여질는지 따라서산간부락의 교통이 차단되지나안흘는지 념려되고잇다한다

四千大金盜難

【大邱】이십이일오후일곱시부터 여듧시반까지의사이에 경상북도 봉화군읍내 봉양재목주식회사(奉陽材木株式會社)사무실에잇는금고를열고 현금사백구십원과 천사백원의 전보위체한장 오백원전보위체석장 합계삼천구백원을 절취하야간것을 이십삼일아침에 사무원이발견하고 곳소관경찰서에알리여 현장검증을하고 엄중히조사한결과 범인은수일전부터칭병하고 결근중에잇든춘양면 서벽리(春陽面西壁里) 리태인(李泰仁)(三○)(假名)으로 판명되여각지에 지명수배하야 범인을엄탐중이라한다

崇商、新興、就明三校에 各一千圓을寄附

成川李冕均氏壯擧



【平壤】성천군 대구면광산리(城川郡大邱面廣山里) 대덕금광산주(大德金鑛山主) 리면균(李冕均)씨는 그지방에서도 빈민구제、공익사업등에 삼십년동안이나 진력하여 활불(活佛)이란 칭호까지 듯고잇든터인데 수일전 자기의 회갑비용을 절약하여 평양숭인상업학교(崇商)에 일천원、평양신흥학원(新興學院)에 일천원、대동군태평(大同郡太平) 취명학교(就明學校)에 일천원을 유지비로 기증하여 각학교와학원 당국으로부터 감사를 표하게햇다 이박게 성천각교에도 상당한금액을 기부한바도잇서 리면균씨의 특거를 칭송하고잇는데 아프로도 교육사업과 공익사업에 전신을 바치겟다고한다 (사진은 리면균씨)

長篇小說

그의自叙傳【93】

長白山人 作 熊超 畵

북경(五)

나는 마가렐과 엘렌을 다리고 인력거를 타고 궁성과 공자묘와 나마스절을 구경하엿다。

그러나 마음이 한가하지아니하기때문에 구경이 재미가 업섯다。마가렐과 엘렌은 아무 경황이 업는듯이 따라만 다녓다。

공자묘에서 목독이 검은 도포갈은것을입은 사람들이 돈을달라고 손을 내밀때에 비로소 마가렐은 입을 열어서

『아이 구축도 하이。참말톤만 아는백성이야』

하고 한번 웃엇다。

참말로 공자묘에 들어와서 받은 감상이라고는 그 직원인듯한자가 염치없이 돈을 달라고 손을 내어미는것이다。중국은공자의 고국이지마는 공자의 가르침은 중국사람과는 상관없는것 갈앗다。마치 명태잡이 하는 곳에서는 명태를 아니먹는것과 갈나고나 할까。예수나신 고국인 유대족에 예수교인이 없고 서가여래 나신 인도에 불교도가 없다는것과 갈아서 역시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못받는다는것일까。중국사람은 논어를 거꾸로 읽는다는 말이잇거니와 논어를 똑 바로 읽은이는 누군가。조선 사람의 조상들은 논어를 지나처 읽어서 걱정이엇다。

공자묘보다는 구경가치로는 나마스절이 더 좋앗다。이상야릇한 물상을 만들어놓은것도 재미잇거니와 누런 장삼 입은몽고人중들이 마치 무덤 속에서 나온 혼령들모양으로 말없이 불상을 싸고도는것도 기관이엇다。

그들은 손을 기슴에 읍하고눈을 나려깔고 자꾸만 걸엇다。마치 세상이 시작되기전부터돌기를 시작해서 세상이 끝난뒤에까지 돌랴는것 갈앗다。

『왜 저렇게 빙빙 돌기만해요?』

하고 엘렌이 이번에는 입을열엇다。

이룡부터 황사──누른 절이라고 하거니와 개와며 기둥이며 모든것이 누르고 중들의 의복도 누르고 얼굴도 누르고 공기까지도 다 누른것 갈앗다。

그들은어떠한 진리를 찾노라고한 얼굴에 주룸이 잡히도록 저러는것일까。

마가렐과 엘렌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웃는것만으로 구경나온 목적은 달성다고 생각하엿다。얼마 살지도 못하는 인생을 가슴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가엾은 생각이 나는것은 성인만이아닐것이다。마가렐과 엘렌이 웃음을 잃고 심심해하는양──실상 그들의 앞길은 어찌 될것인지 망연하지마는──을 보면 내 몸을 십자가에 박아서 될것이면 그리해서라도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싶었다。무슨 인연으로인지 그들은 지금 내게 의탁하고잇다──그렇게도 믿을만한 힘이 못 되는 내게 매달려잇다고 생각할 때에 한량없이 애처로웟다。더구나 오늘 공사관에서 마가렐이 빽죽빽죽하는양을 볼 때에는 뼈가 저리는듯함을 깨달앗다。

나마스절에서 인력거를 몰아서 돌아오는길에 어디로 가서 저녁이나 사먹을까하는 생각이 낫다。북경서 앞으로 한달이나 유숙해야 할것을 생각하매 돈 한푼을 허피 쓸수가 없엇다。호텔 식당에서 밥을 사먹는것은 대단히 비쌋다。아모리 절약해서 먹어도 한 사람에 이원복은 들엇다。중국 음식집에 들어가면 그 절반을 가지고도 잘 먹을수잇으리라고 생각하엿다。

『家常便飯隨時小酌』이라고 침판에 금자로 박은 어느 음식점 앞에서 인력거를 나렷다。중국 사람의 잡이라면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것이 조선 사람의 상정이다。사람의 살로 만두소를 넣어 판다는 수호지 영향일가 만주에 룽마우즈(마적)가 사람 죽이기를 파리 잡듯한다는데서 온 생각일가。우중충한 복도로 오불꼬불 들어 가서 칭칭 대를 올라가서 또 오불꼬불 어떤 방으로 인도할 때에는 결코 기분이 좋지는아니하엿다。어느 구석에서 청룡도가 나오지나아니하나、철편이나 올개미가 나오지아니하나 하고 마음이 놓이지아니하엿다。마가렐과 엘렌도 몸을 펴지못하는것 갈앗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나는 스스로 부끄러워하엿다。다 갈은 사람이 아니냐。그중에도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화를가진 한족이아니냐。요순의 나라、공자 로자의 나라가 아니냐。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화평할수가 잇엇다。

愛用者大優待

百萬名優待·破天荒의大懸賞

懸賞課題

一、クリーム中第一조흔것이무슨クリーム ○○クリーム

一、三好クリーム는어데서맨듭니까 三好○○○○○○

應募規定

1、三好クリーム、三好水白粉、三好刷白粉、三好香油以上四種(어떤것이나一種이든)의外函裡面에左記와가티解答을記入하시오 但外函用紙는二十五錢이면 二枚 五十錢이면 一枚라야 愛用賞이며 當籤의資格이有함

2、課題○中에適合한文字를記入함

3、一、二、三等賞品中希望品名

4、住所氏名을明記하야封皮에 京城府慶雲町 三好化粧品株式會社 新築記念懸賞係로보내시오、十五瓦(四匁)마다 三錢切手貼付하시오 郵稅不足時에는接受치아니함

5、一人이幾枚라도應募할수잇사오며 應募數가만을사록當選率이만습니다

◎注意事項◎ 答案用紙는右記三好クリーム、三好水白粉、三好香油、三好刷白粉外函(五十錢)이아니면絕對無効로함(葉書或은白紙에記入한것은無効)

●抽籤方法 締切後新聞記者立會下에 嚴正抽籤하야當籤된芳名을 新聞紙上에發表하고賞品을發送함

期日 自昭和十二年三月十五日 至同 七月三十日

●發表八月二十日頃 ●賞品發送=八月末日=

總當賞(應募者全部) 脂取紙一綴式進呈

다시抽籤으로二重賞品進呈

豪華大賞品

一等 十人 高級手提蓄音器 一臺 同 ラヂオ 一臺 同 鏡臺 一臺 同 ミシン 一臺 同 眞珠入金指環 一個 同 毛布 一枚 右希望品中一點

二等 二十人 電氣時計 一個 手提金庫 一個 高級ハンドバツグ 一個 右希望品中一點

三等 四十人 セーラー萬年筆 一個 三好化粧品組詰合 一組 電氣アイロン 一個 右希望品中一點

四等 三百人 本社特製刷白粉五十錢 一個

五等 七百人 本社特製刷白粉三十錢 一個

愛用賞(應募者全部) 百萬人 本社特製脂取紙一劵式(五十錢分買上時마다即席에서無漏進呈함)

新築記念 百万名大懸賞

總當賞

三重景品附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七十錢 一圓 二圓

(全國各藥店에잇슴)

京城府慶雲町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一七二七番·振替京城一九八五八番

三好化粧品

●賞金總額十五萬圓

三好クリーム 三好水白粉 三好刷白粉 三好香油 의

空函으로 福運이오는 大懸賞!!

景品附特約店大募集

本社는 新築記念으로 左記規定에依하야 景品附特約店을 大募集하오니 此好機를 逸치마시고 多數應募하심을바라나이다

規定

一、景品總數 一萬口

一、景品總額 五萬圓

一、甲口는五十圓注文이有할時에本社特製水白粉五十錢 分打添呈

一、乙口는三十圓注文이有할時에本社特製コリア石鹼二十五錢分一打添呈 (但百圓以上注文時는此比例에依하야景品添呈)

一、期間 自昭和十二年三月五日 至六月末日

一、景品 注文과同時에發送함

經濟時評

三月二十四日
南大門市場期滿了
今後進路果如何

南大門市場은 그淵源이 李朝時代의 常平廳이라는 國稅徵收物品出納官廳所在地를中心으로 市場을形成한 오랜歷史를가지고 以來數百年間 子子孫孫 營業을 繼承하여왓고 二百卅餘店의商店이 資本金總額七、八百萬圓을가지고 一日賣上高 八萬圓을不下하는 朝鮮最大의 商權을가진 市場이것은 새삼스럽게 말할것도업는데 中央卸賣市場設置計劃을 따러 그商權이 威脅을바더오든데다가 今年三月二十四日로써 市場許可期限 滿了가되어 이에 "南大門市場"이란것은 업서지고말엇다。

×

市場許可期限이 滿了되엇지만 그러타고 現在商人들이 문닷고 營業을 못하게되는것이 아니며 二十五日 京城府會席上 府當局의 答辯에 依하야도알수잇다。即

「現在 南大門市場자리에서 商店街로 존히 發展할수 잇다」

고 하얏다。

그러나 歷史오랜 南大門市場은 이미 업서젓스므로 現在位置에서 그냥 營業을 繼續한다드래도 그는 商店街는 될지언정 市場으로서의 機能과 信用과 役割은 減少되는것이며 今後 商店街로서 얼마나 發展할지는 疑問에 지나지안흘가 적이 念慮가 업지안타。發展은커녕 衰退가 落日처럼 해질것은 常識으로도 推測되고남음이 잇을것이다。

×

이가든까닭에 南大門市場商人은 中央卸賣市場對策으로서 綜合市場設置를 當局에 要望하고 誠意잇는活動을 해왓스나 지금까지는 그實効가잇슬것갓지안타。

우선 二十五日 府會에서 朝鮮人議員으로부터 南大門市場問題를 質問하여 이에對한 當局의 答辯이 잇섯스니 이는 朝鮮人議員으로서는 當然한 質問이오 南大門市場이 中央卸賣市場이라는것이 업서진데 對하야 大京城이 되니만큼 中央卸賣市場이 必要하겟고 또綜合市場이 必要하다。中小商工業振興은 世界的으로 重大問題가 되어잇는今日 朝鮮人中心으로서는 큰商權을가저 中小商人으로서큰 地盤을 직히어오든 南大門市場이 업서진데 對하야 時代推移라하야 簡單히 默過할問題일가? 너무나 當局이나 社會나 關心이업는것이 아닐가?

動業者의 命이걸려잇는 이때 朝鮮人側議員으로서 너무나 冷淡한것이아닐까? 일즉이 南大門市場對策으로서 綜合市場設置를 當局에 要望하고 ... 朝鮮最大의 商街의運命을 가진 南大門市場이 업서지고·朝鮮最大의 商街의運命이 엇지될가?

(李 晶 燮)

國營貿易館設置
對滿關稅制度調整
◇……海外見本市擴充、緊密連絡等
商工省諮問 貿易振興의 朝鮮商議答申

商工省으로서 日本商議에 經由하야 諮問에 依한 貿易振興施設에 關한 朝鮮商議의 意見은如左하다

一、對滿關稅制度의調整
二、國內의 貿易港과 海外市場의 國營貿易館設置
三、海外의 貿易施設을 擴充하는同時에 外地貿易機關과의直接緊密한 連絡을 圖할것
四、海外見本市擴充
五、朝鮮產業調査會에서 決定된 貿易振興에關한 施設計劃促進

朝銀副總裁
公森太郞氏로內定

【東京電話同盟】結城藏相은 生產力擴充을 骨子로하는 金融財政政策遂行에 當하야 特殊銀行首腦部와 政府의 連絡緊密化에 重點을 置하고 일즉이 缺員中의 朝鮮銀行副總裁와 興業銀行副總裁를 銓考中이든바 今回 朝銀副總裁에는 現興銀筆頭理事公森太郞氏、興銀副總裁에는 現同行理事 河上弘一氏를 各히 轉出昇格시키기로 內定되어 近日中에 正式發令을 보게되엇다

對中進出에拍車

缺員中의 朝銀의 副總裁는 興銀筆頭理事公森太郞氏로 內定되엇는바 朝銀本店에는 아직 何等의 公電이업스나 그러치한말로보고잇다 朝銀의 副總裁는 昨年十二月 松原純一氏가 辭任한以來 約三個月의 缺員으로되어잇든것인데 朝銀이 滿洲各支店을 滿洲興銀에 讓渡하고 그대신 上海以北의 中國의 金融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기로 되어잇슴에 鑑하야 多年 大藏省의 駐中財務官으로 中國事情에 通한 公森氏를 結城藏相의 關係로 銓衡한것이라고 解釋된다 同氏의 副總裁就任은 朝銀今後의 對中進出에 多大한 權威를 加하리라고注目되고잇다한다

硫安公定價
限月格差
五錢은過高過라고

肥料統制法의 肥料公定價格은 아직 日本內地의 遲延에依하야 朝鮮內도 勿論 正式決定을보지 못하얏는데 關係方面에서는 이에 關聯하는限月別價格差에 深甚한 關心을갓고잇다 即 日本內地의 組合申請에依하면 限月別價格差는 大體五錢으로 定하고잇는듯한데 一部官廳方面의 意向으로서는 先物의價格差는 金利、倉敷料의 程度를 妥當타하야 價格差五錢은 過高하다는論이잇고 一方 民間方面에서는 日本內地와달라 朝鮮은 金利倉敷料가모다 빗싸고 特히 倉敷料는 ... 日本內地同率로 보기는困難하다는 意見이 잇다 이限月價格差問題는 이미 肥料業者間에서 行하고잇는 先物取引의 旣約定에 關係가잇슴으로 注目되고잇다 朝鮮의 意向으로서는 大體日本內地同樣의 方針인듯하다

海運賃引上
米直送促進

大戰景氣時代를 彷彿케하는近海海運의 大活況은 朝鮮航路의 鮮米運賃의 大幅引上을 不可避한 狀勢로하야 이미三割의大引上問題가 具體化하고 잇는데 이朝鮮米 運賃引上은 當然朝鮮運送의 朝鮮米直輸送에 好影響을與하는同時에 各地의 商團諸機關의 立場에서 反對熱에 注油하리라고보인다 即 近海海運中의 最低運賃이라하는 現朝鮮米運賃도 直輸送特制運賃과 對比하야 問題되여잇든니만큼 今回三割引上이 實現되면 奧地商人뿐만아니라 主要集散地로부터의 直輸利用도 激增하리라고보인다

그리고 朝鮮運送의 右集荷는 過般의 關係店長會議에서도 協議되엇는바 傳하는바와如히 穀聯 或은 農會等과 提携하는如한 人爲的集荷政策은 採用치안코

一、同制度의趣旨와 利便을徹底的으로 荷主에게 周知케함
一、右輸送責任屯數인 六萬屯은

이方針에依하야 充分輸送可能라고보이어 假令 滿額에 達치 안는境遇라할지라도 集荷에 無理를 避한다는方針을 決定하얏다한다

米運賃値上
穀聯과交涉

朝鮮米輸送協會의 朝鮮米運賃引上은 二十五日午後朝鮮郵船營業課長 高井春五郞氏가 正式으로 朝鮮米運賃引上의 折衝을 開始하얏다 高井氏는 協會를 代表하야海運界의 情勢를 說明하고 中間運賃引上不可避의 情勢를述하고 穀聯과의 協商에對하야 諒解를 求하얏스므로 穀聯에서는 各其機關에 諮키를 約束하얏다

化學工業工場
多獅島近郊에

森、東拓合作의 化學工業會社新設計畫에 就하야서는 過般來日本電工의 見玉技師가 朝鮮에와서 工場地에 對하야서 愼重實地踏査中이든바 原鑛石運輸의便宜가잇서 多獅島近郊로 決定하고 平北道廳、總督府에도 諒解가되엇다한다

國債消化에暗影
貸出激增、預金增勢不伴
◇……全國銀行의狀況

【東京】銀行의 貸出勘定은 一般財界活況을 反映하야 連日膨脹을 繼續하고잇스나 預金의增勢는 이에 伴치안어 그때문에 銀行의 手許는 자칫하면 窮屈하게되어 그結果는 國債消化에도 重大한 影響을 與하고잇든바 二十日發表된 東京手形交換所調査에 關한 全國組合銀行及代理交換委託者의 協定에依하면 如斯한 傾向은 益益 顯著하게되엇다 即 二月末 全國組合銀行及代理交換委託者의 預金合計는八十五億三千四百七十五萬八千圓으로 前月에比하야 僅僅五千百八十五萬圓 또 이를 六個月前인十一年八月에 比하야 三億八千七百二十一萬九千圓이 增加하얏슴에 反하야 貸出勘定은 六十一億七千三百八十八萬一千圓으로 前月에比하야 一億九千九百萬圓 또 十一年八月末에比하야 五億四千百十萬八千圓의 各激增이다 그結果 有價證券勘定은 五十億一千七百二十萬一千圓으로 前月에 比하야 千八百餘萬圓의 減少로되엇다

土建豫算內容

京城土木建築業協會의 昭和十三年度豫算은 六十一萬四千八百六十九圓인데 收入中主要한것은 賦出金五十一萬五千九百四十五圓 財產收入(家屋賃付料、不動產賣却代) 六萬九千四十圓이오 支出의 主要한것은 協會費三十八萬五千二百三十四圓、其中廿萬九千七百廿四圓이 報酬及 給料旅費、舍宅料等 十七萬五千五百十圓이 事業費 其外新營費(事務所 新營舍宅買收其他)十八萬七千圓等이라 한다

南電創立總會
四月十日開催

南鮮電氣合同會社創立總會는四月十日 東京 萬平호텔에서 開催하기로되엇는데 副社長以下의 役員도 當日 決定을 볼터이다

緬羊輸入
九月에完了

緬羊輸入問題에 關하야 協議키 爲하야 渡東中이던 油井總督府農務課技師는 歸任하얏는바 如左히말한다

本年度輸入할 緬羊輸送關係로農林省과 協議코저 갓다왓는데 大體確定과가티 朝鮮에 輸入할수잇다 即本年輸入할 緬羊의濠洲로부터의 許可書는 全部完了되엇스나 將來困難이생길가 걱정이다 緬羊運搬에對한 輸送船은 船腹不足의 海運界關係로困難을 感코잇스나 잘決定되엇 滿洲의 形便으로는 朝鮮으로는 九月까지는 時期가잇스므로 억지로라도 九月까지는 豫定六千二百頭의輸送을될것이며 輸入頭數는 五回分될것이다

兩大硫化鐵鑛
宇部窒素서買收

【元山】傍系會社와 아울러總資本二億圓이라고 稱하는 山口縣宇部市에잇는 宇部窒素肥料會社에서는 過般江原道 淮陽郡下北面金谷里의硫化鐵鑛을 六十萬圓에 買收하는同時 索道에依한 鑛石運搬은 安邊新高山驛으로 決定하고 三十萬圓을 投하여 索道工事를 着手하리라고한다 또한 端川郡水下面의 硫化鐵鑛을 買收하여 兩鑛山에 三百五十萬圓을 던지어 十個年繼續事業으로 兩鑛山에서 每年各五萬噸의 鑛石을 發掘할豫定으로 그事務處理場所를 愼重히 考慮하든바 요지음 그出張所를 元山에 두어 直接鑛石을 元山으로부터 宇部에 直送하기로되엿다고한다

京城水產會社
營業期限滿了
一個年延長?

京城水產株式會社는 今年三月로써 營業期限이 滿了되는데 이 繼續은 總督府의 水產市場의營利經營排除 京城中央市場開設關係上 注目되어同社에서는 十個年繼續營業申請을 提出中인바 大體暫定的으로 明年까지는 認可되리라한다

모든[事業]에 統制必要
蘇聯가티急激히는안하겟다고
林首相이方針을披瀝

林內閣이 產業統制를 어떠케할가함에對하야서는 產業界 各方面으로부터 多大한 注目을 끄을고잇든바 前日 林首相의 衆議院豫算總會에서의 答辯을보면 大體 『目下 모든 事業을 이르킴에 對하야 國防充實을 아울러考慮하면 어느程度 그를 急히 하지안흐면 안되므로 그를爲하야서는 統制는 必要라고생각하나 그러타고 蘇聯의例를 取함은 日本의 國情에는 맛지안는다 一部의 사람이 主張하는바와가튼 極端의 統制는 日本에는 맛지안는다』는意를 述하야 產業統制는 어느程度 不得已하다할지라도 過激한 統制는하지안흘모양이다

三土木出張所廢止
京城釜山擴大

總督府直轄의 土木事業施行機關인 全鮮八個所의 內務局土木出張所中仁川、麗水、元山의三個所를三月末日限廢止키로 決定하얏다 右廢止三出張所中仁川及元山兩出張所는 京城出張所에 麗水는 釜山出張所에 編入하고 昭和十三年度에 京城四百萬圓 釜山約八百五十萬圓의 事業費豫算을消化키로되어 京城釜山兩出張所는 顯著히內容을 擴大充實케되엇스므로 出張所長의 委任權限도擴大될터이오 今回의 三出張所廢止는 工事膨脹에對한 機構의 整備로서 그重要性에 鑑하야 職員의整理는 行치안코 相當數가 增員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安川東拓總裁四月九日入京=三月上旬 朝鮮滿洲中國의 事業을視察키爲하야 出發豫定인安川東拓總裁는 議會終了에 依하야 來四月五日 東京發途中大阪에 一泊하고 四月九日入京키로되엇다 約二個月 豫定으로詳細히 事業地를 視察할豫定이라고

○實協總會에二十二名出席=日滿實業協會第五回臨時總會는 四月五日 名古屋市에서 開催하기로되엇거니와 名古屋汎太平洋平和博覽會開催中임으로 出席申込도 多數에 達하야 이미 二百四十六名에達하고 朝鮮으로부터는 二十二名이 出席할터이다 同總會에는 結城大藏大臣 丁滿洲國實業部大臣도 臨席하야 一場의 訓示를 할터이라고

○雄基電氣는長津江으로부터買電=雄基電氣는 일즉부터 火力自家發電에依하야 雄、羅一帶의電氣供給을 行하고잇는바 今年三月부터 長津江水電에서 買電하기로 決定하고 同社가 朝鮮窒素系의 石炭工業에 ... 阿吾地發電所는 三月二十一日付로 認可를어더 實地工事에 着手하얏다 阿吾地發電所는 總出力四千키로로 雄基電氣에서는 結局 長津에서 百키로의 電氣를 買電하기로되엇다한다

寸鐵

商店 李吉榮 (三月廿三日)總督府

○殘存米調査不正을 林財務局長이 東理가맞지안타고 衆議院에서答辯

○調査를하라면 徹底히해야하고 調査의結果가 不正이라면 發表치안는것이 如何

○쓸데업는 數字를 公表하야 市場을動搖시킬 必要가잇겟는가?

○土地投機를 防止코저 總督府

○惟一의投資對象이 朝鮮서는 土地인만큼 投機는 ... 이運轉한

株式
氣迷風情
小高下

今日의市勢(廿六日)

前場伸悩 低落一巡과함께 採合商狀이된 株式은 今朝의外電의 反落臨時를보고 去益氣迷人氣가 되엇스나 環境에 이러타할 惡材料를 發見키困難한데서 實方의 利喰賣와함께 押目買的 新規買도多少잇서寄付는鐘新二圓六十錢高 東新六十錢高 大新八十錢高 日產五十錢高等으로 强調를示하엿스나 反動的 人氣는强한데다가 月末受渡分物도 잇서서 上伸力이阻害되어 伸惱狂에保合하다가 結局 鐘新二圓九十錢 東新百六十圓丁으로 前場을마치엇는데 步調는堅强하엿다

後場少押 後場은 鐘新十錢高 東新十錢低 大新二十錢高等으로 區區裡에 寄付한後 採合裡에 不動이엇스나 引際에至하야 多少軟化하야 少押을 告하엿다

整理裡에鍛鍊

市場의 人氣는 鐘新의 反落後 形勢觀望의 態度로 賣買兩方이 모다 積極的態度를 示하지안코며 玉整理도 一段 더 進捗되지안흐면 안될터이므로 急反撥은 大體잇슬수업고 大體로 當分은 整理裡에 採合을 繼續할것으로보이는바 이제 가장 注目되는바는 米國의 好景氣와 世界的인 물레로 昂騰一路를 밟고잇는 絹育株式이 政府의 物價抑制說과 로즈벨트大統領의 平和會議提唱說로 反落商勢가 되어 低迷裡에 推移되고 잇는것은 人氣에 關係가 至大한데서 特히 今後의 米國株式의 動向을 注視하지안흘수업다 그러나 歐洲에서는 伊太利義軍의 西班牙出戰을 契機로다시 英伊關係가 惡化하고 佛國이 또한 經濟를尖銳化하게되엇스므로 地中海上에는 다시 一觸卽發의 危機를傳하게되엇스니 이推移는 또한 注目하지안흘수업게되엇다。如何튼 이러한 世界情勢는 一時도 安心을 不許하는터이므로 株式의 前途에는 依然 大波瀾이 잇슬것이며 同時에 急激한 反動低는 아직 時尙早라고 볼수밧게 업슬것이다。

▲東拓新舊暴騰

今朝의 雜株紙配는 大體鐘紡에 不變이엇는데 特殊物에는 依然 買氣가 集中되어잇섯다。整理昭和新株 一圓五十錢高 東滿鐵一圓高로 旣報하엿다 昭和人絹 東洋人造 人造毛等은 昨日과거의 不變이엇는데 東拓은 三圓暴騰이엇다。電力株는 保合이며 工業株에는 實需가잇서 電工新一圓五十錢低 ... 一圓低 第二 ... 五十錢低等 으로 不動인데 ...

國債
釘着同樣
不動

▲東京【東京電話同盟】月末接近도 象하야 强弱雙方의 處分賣買가相當하엿으나 注目되어왓는데 市勢는 依然 釘着同樣의 保合으로 推移되어 三分半은 底堅强하엿스나 外貨債는 環境의 形勢觀望으로 米貨六分半 五分半共히 三十錢低의 保合程度이엇다

▲甲五分利一〇〇九〇 ▲一回四分一〇一〇〇

▲大阪 ▲甲五分利 一〇〇九〇 ▲第三五分 一〇一九二 ▲四分半 一〇一八五 ▲二回四分 一〇二〇五 ▲三分半 九八〇〇 ▲佛貨 一九七五〇 ▲米貨六分半 一〇〇四〇 ▲滿洲公債 八九八〇

實物前場取引

鐘紡이며 特히 事業에는 買氣가集中되어 ...

▲東洋모스 ... ▲東滿鐘紡 ... ▲川崎造船 ... ▲大阪商船 ... ▲大同電力 ... ▲부르조아 ... ▲小田急 ... ▲京南鐵道 ... ▲滿洲工業 ...

米期
採合이나
堅强

前場少戾 今朝阪地三十三圓六十五錢인 四丁高를 據하고 當은五十六錢인 六丁高 中은 七十七錢인 六丁高 先限은 三十一圓八十五錢인 五丁高로 寄付한後 阪地五十七錢까지 少弛하엿다가 다시 六十五錢을 보임에따라 七十六錢으로 다시 六十四錢을 올리엇스나 阪止六十一錢을 보고 結局七十七錢二本同價로止場하다

後場反弛 後場은 三十一圓八十錢인 三丁高로 據을始하엿스나 阪地低에 눌려 二節七十九錢 三節七十七錢으로 少弛하고 四節七十一錢으로反弛하엿다

當限受渡如何

納會期에臨迫한當限은 果然如何히 展開될것인가를 綜合하여 보면 實方主力側은 金太、丸ウ、丸玉商店이오 賣方은 ... 에서는 旣히二、三千石의 實米를 準備하여잇는二反面 丸大店에서는 二千三百石程度의 受渡를 하기로 決定하엿다하며 其外金太、丸ウ兩店은 渡米與否에 態度가 아직 鮮明하지못하고 又는 賣方으로서의 受渡할지 몰으는形勢이오 丸太自店에서의 受渡半의 狀錢이 大體 當限渡는 平錢에서 三千四圓二十錢이나 丸仁三等米의 三十四圓二十錢이 그以下의 低落은 期待키 難할것 갓고 從하야 買方은 될수잇는데까지 受渡를 할것이라는데 分키難한 受渡는 업슬것이오 又는 前價로도 損害를 보기까지에 일이지는안흘것갓다고 云云

大勢는反高?
月末戰도高位

挽近의 市勢는 옴의直接事情을 떠나 一時株式、綿絲의反撥을 바드면서 期待된 反撥이 ... 受하야 阪地三十一圓〇八錢까지 奔騰하엿다가 其後株式綿絲의 反落을 받아 阪地는 約七十丁의 反落商을 告하엿다 ...

正米
京仁低나
區區

京城反弛 實行不振과 産地賣分到到來로 氣配二十錢反弛이엇다 ⓔ三等三一、二〇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三二、五〇

仁川反落 實行不振으로 一般은 買機踏하고잇는때에 産地의賣分賣氣가 擴頭하야 人氣抑壓되어 市勢는 一擧에 二十錢反落을 告하얏나 ⓔ穀良三等三〇、九〇 銀坊主同 三一、四〇 同 三一、一〇 多摩錦同 三一、八〇 同三一、五〇 一等白米四二、六五 ⓔ二二、五五

釜山保合 市場實物은 三千五百叺이엇섯는데 移出向의買物은업섯스나 當用賣需側에 繼續하야 實行되어 市勢는 底堅裡에 保合이엇다 ⓔ穀良三等三一〇〇 四等三〇、七〇 一等白米 一三、一四

大邱不變 期米의 小浮動은 保合으로 氣勢를 올리지못하고 賣方이 모다 消極的態度이어서 市況은 極히 沈靜裡에 保合이엇다 ⓔ穀良三等三〇、八〇 四等三〇、五〇 一等白米 一二、三五

群山强調 廻着은 十二輛이나 日本內地當用側의 買付도 移出側의 買氣를 誘導하야 市勢는 十五錢方高敲하야 市況은 極히 强調를 示하엿다 ⓔ坊主三等三一、一五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一三、二六

木浦閑況 移出向의 買物이 杜絶되어 實質는 實需向의小口手當에 限하야 市況은 不活潑하고 一般으로 低價이는 極力 實需讓하고잇다 ⓔ銀坊主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一三、〇〇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株式

[illegible]

株……短期市場은 意外의大狂漏이잇섯지만 ▲現株市場은 多少의影響은잇섯스나 急反撥을告하엿고 昨日에는 實物이 업서 實買停頓이엇다니▲如何히 株式의實勢가 頑强한지可히알걸 ▲또한 短期市場보담도 雜株에 人氣가 集中되어 잇는것을 可知 ▲이것은 時代가 採算中心이 되때문인데 이러케되면 鐘紡도 增資實現이 遲延되면 反落商情이될지도 未知 ▲그러나 그亦會社의 秘密이므로 알길이업스나 何必 鐘新만이 株式市場을 左右할 은 아니니까……

米……昨今의市勢는 大體頑强하면서도 買氣가依然潛在▲今朝正米는 丸仁三等이二十錢이나反落 그原因은아즉알수업스나 大體低迷의狀態▲當限嚴格에 ... ▲大體買氣가 平凡하기로 加하지안홀보면 例外的行動을 ... 當限이納會되고 六限이發生할때에는 大勢의又復一高는 ...

今日財界 (廿六日)

[illegible]

海外經濟 (二十五日)

[illegible]

銀行券 (二十五日)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鰯油粕·蔘粉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正米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期米

[illegible]

砂糖 / 生糸 / 人絹 / 棉花 / 綿糸

[illegible]

米 期 康益夏 仁川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金·銀·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3939 1572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 代金引換販賣部